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일 시: 2015년 7월 9일 (목) 오후 2시
장 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최: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자치부
협 찬:  국민연금공단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 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 차

1. 프로그램	4
고 은 지 (본 연구회 부회장)	
2. 인 사 말	5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 연구회	
3. 축 사	
김 영 래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 전 동덕여대 총장)	7
조 성 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9
4. 주제발표	11
정 경 희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실 고령사회연구센터장)	
5. 토 론 자	
1) 이 상 철 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27
2) 김 헌 수 박사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 팀장)	33
3) 김 경 록 소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37
6. 부 록 : 본 연구회 연혁/관련언론기사	43

프로그램

1부 사 회: 고 은 지 부회장

- 1)개회선언
- 2)국민의례
- 3)인사말씀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4)참석자소개 사회자

- 5)축 사 : 김 영 래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 전 동덕여대 총장)
 조 성 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2부 사 회: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1)주제발표 : 정 경 희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실 고령사회연구센터장)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 2)토론자 :
 - 1) 이 상 철 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 2) 김 현 수 박사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 팀장)
 - 3) 김 경 록 소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 3)참관자 질의 / 응답

- 4)총마무리 발언 : 정 경 희 박사

3부 교제시간 만찬 & 본의토론

인 사 말

지난 6월 한 달은 메르스 여파로 대한민국이 큰 곤혹을 치렀습니다. 이제 메르스 확진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완치가 되어 퇴원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국민들도 일상생활로 되돌아가고 있으며 소비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 다행입니다.

한국전쟁이 후 태어난 63년생에서 55년생을 1차 베이비부머세대라고 합니다. 약 732.6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인구집단으로 여론을 주도하며 사회, 정치, 모든 분야에 지형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55년 베이비부머 세대는 올해로 환갑을 맞이했는데 그동안 이들이 살아 온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현대사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에 걸쳐 실질적 주역이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세계 유례 드문 빠른 저출산, 고령화, 평균수명 연장, 지속되는 저성장 등의 영향으로 이들의 은퇴/퇴직은 빨라졌습니다.

거기다 이들은 위로는 부모세대를 부양하고, 아래로는 자녀들의 실업률이 높다보니 캥거루족이 늘어 늦게 까지 자녀들을 책임져야하는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최근 자산관리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0세 시대 은퇴 설문조사' 결과, 은퇴 이후 적정한 월평균 노후자금은 201만~300만원 이고 적정 자산은 9억~10억 원, 현금자산은 1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14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베이비부머 가구당 총 자산은 4억3000만원에 불과하고, 현금 등 금융자산은 3000만원이며 노후 사적연금 월수령액이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화 되어 중상층이 많이 몰락하여 우리 주위에 취약계층이 더욱 두터워 졌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베이비부머세대와 관련 활발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 취약계층의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정책토론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회가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대상으로 이들의 FEEL (氣) 살리기를 위한 한마당이란 주제로 2015년 행자부 비영리민간단

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사업을 지원하여 오늘 토론회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의 베이비부머 세대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주제로 전문가 분들 모시고 토론회를 통해 이들의 삶에 희망의 실마리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토론회에 축사를 위해 공사다망한 가운데 오신 김영래 전 동덕여대 총장님과 조성철 한국 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메르스 가 아직 완전히 퇴치되지 않은 상황에 이 자리 참석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 7. 9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이 정 숙

축 사

김 영 래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 전 동덕여대 총장)

초고령사회에 대한 복지정책, 철저한 준비를

우선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행정자치부가 후원하는 “취약계층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 라는 주제를 가지고 금년도 두 번째 마당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지는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사회의 등장과 더불어 선진국의 평가기준은 국민 1인당 GNP가 얼마인가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복지정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 국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복지의 문제는 성별과 세대, 지역을 초월한 과제입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 전체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사회의 중심 세력으로 노동활동을 하고 있는 청장년 세대의 경우, 일정한 경제소득이 있어 복지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들도 일정기간 후 은퇴하게 되면 역시 복지 문제는 최대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구촌에서 가장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는 복지문제가 어느 사회보다 심각한 현실적 과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의 핵심 주제인 1955년부터 1963년 출생한 소위 베이비부머인 50대의 문제는 전체 인구의 약 14.5%로 거의 700만명에 달하고 있어 우리 사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의 하나입니다.

이는 해방 전후 세대인 65세 이상보다 더욱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노후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대는 대부분은 이미 은퇴를 하였거나 또는 은퇴에 직면하고 있지만 가정적으로 자녀들의 결혼시기, 새로운 삶의 준비 등으로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해결에 어려움과 더불어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의 자녀들은 IMF 외환위기, 200년대의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일자리가 구하기도 어렵고 또한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아 부모로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갖는 고민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과 복지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의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봅니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2009년 창립 이래 지구촌의 최대 화두인 복지문제에 대하여 꾸준하게 토론회 등을 개최, 정책대안을 정부에 제시함으로써 복지정책 추진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비롯하여 지역복지, 빈곤층의 복지사각지대, 공무원 연금, 심지어 통일 후 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정책당국자들로부터는 물론 일반시민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이제 세계가 부러워 할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하여 경제규모 제14위까지 되었습니다. 교육열 역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 지난 달 발생한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정부의 대처는 아직도 후진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복지정책도 아직은 초보단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빈곤층의 복지 문제는 물론 오늘의 주제인 베이비부머의 복지정책도 아직은 초보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도 선진복지사회가 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정책을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선진복지사회의 추구는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며 동시에 추구해야 될 국가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이중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사회에 걸맞은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정책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선거 시 정치권에 의하여 일시적인 인기영합적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서는 안 되며, 지속가능한 차원에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민·관·학이 산학연 차원에서 거버넌스를 통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과제가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선진복지사회의 실현이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창립 이래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을 통하여 바람직한 정책 대안 제시에 노력하시는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과 회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동시에 오늘 주제발표를 하여 주시는 정경희 박사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동시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대한민국의 심각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금번 토론회 개최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토론회 준비에 애쓰신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의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는 과정은 성공 추구에서 가치 추구의 삶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년기를 앞두고 있는 장년층은 개인의 영달보다 사회에 헌신하는 보람된 일을 찾아야 할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장년층, 일명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현재는 어떠합니까!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중심에 있었지만 외환위기, 글로벌금융 위기 등 성장에 따른 진통을 몸소 체험하고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에 매진하느라 연금 이외에는 마땅한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소위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2014년 10월에 발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우울증 관련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에 의하면 2009년과 비교했을 때 연령별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구간은 노년층과 베이비부머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세대 대거 진입은 생산인구 감소(2017), 고령사회 전환(2018)과 함께 대한민국의 심각한 인구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노년층이나 유소년 층에 비해 베이비부머 세대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낮고 베이비부머 세대들 상당수는 본인들의 노후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국회, 정부와 사회 일반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노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과제를 수립하여 다가오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일자리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고 했던 간디의 말처럼 일자리를 나누는 것보다 효과적인 복지는 없습니다.

모든 베이비부머세대의 앞날에 언제나 보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토론회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7. 9.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조 성 철

주 제 발 표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정 경 희 박 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장)

1. 베이비 부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

□ 베이비 부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베이비 부머 세대중 가장 나이가 많은 1955년생이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하면서 높아지기 시작하였다(삼성경제연구소, 2010; 정경희 외, 2010; 통계청, 2010). 그 후 베이비 부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조금 약화된 경향이 있지만, 인구고령화시대에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노년기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베이비 부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첫째, 1955-1963년생을 일컫는 베이비 부머¹⁾는 2015년 현재 모두 50대의 연령대로 약 70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4.5%(2010년 기준, 통계청, 2012)이다. 이러한 규모는 65세 이상에 비하여 큰 규모이다. 따라서 무시할 수 없는 인구규모이며 이들의 삶의 질이 우리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밖에 없다. 즉 이들이 어떠한 삶을 영위하는가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미치는 파급력이 큰 것이다.
- 둘째, 이들이 50대라는 생애단계에 놓여있다. 2020년이 되면 이 세대가 전부 65세 이상이 되어 본격적인 노년기에 진입할 것이다. 이들이 어떻게 현재의 삶을 재정비하고 노후를 준비하는가 하는 것이 이들의 노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년기에 들어가지 전에 시급히 노후준비를 집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 셋째, 이들은 제도의 불일치성을 경험해내고 있는 세대이다. 실질적인 퇴직연령은 50대 중반인 반면 연금수급연령과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연령은 60대인 등 제도상의 불일치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50대에 경험하게 되는 문제는 매우 구체적이며 이들이 노년기에 진입하기 전까지 경험하게 될 심리적, 현실적인 불만이 클 수 있다. 따라서 경과적인 조치라는 측면에서도 베이비 부머의 노후준비와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다.
- 넷째, 이들은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경험해온 세대이다(손양민, 2010). 따라서 이들은 전세대와 다음세대 사이의 상이한 가치관의 변화의 와중에 놓인 낯선세대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현 노인세대에 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즉 이들이 경험하는 문제는 복합적이며 한 영역의 문제가 다른 영역의 문제와 연계되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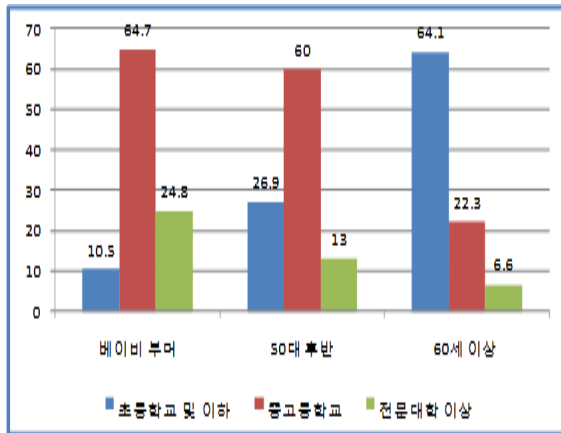
1) 베이비붐(baby boom)은 어떤 시기에 출생하는 아이의 수가 폭증하는 현상으로, 이 시기에 태어난 출생 코호트를 베이비부머(baby boomer)라 부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급증하고 출생아 수도 급증하는 베이비붐을 경험했는데, 이는 전쟁 동안 별거하던 젊은 부부들이 재결합하거나 미루었던 결혼과 출산을 한꺼번에 하면서 출산율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출산율 기준으로 볼 때, 1955~1963년 조출생률이 다른 연도보다 두드러지게 높아, 이 기간에 태어난 사람을 베이비부머로 규정하고 있음(통계청, 2012).

- 다섯째, 이들이 향후 영위하게될 노년기가 매우 길다는 것이다. 평균수명이 증대해왔기 때문에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노년기가 길어졌다. 따라서 노후설계가 상정해야 할 기간이 길며, 노년기 동안 경험하게 될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변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후설계를 수정보완해가야 할 필요성이 높다.
- 따라서 베이비 부머는 노인이 될 노화의 ‘과정’에 있는 세대라는 점에서 이들의 노후설계에 대한 관심을 시급히 구체화시켜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후설계의 활성화를 통하여 노후설계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노후설계를 통하여 베이비 부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베이비 부머 세대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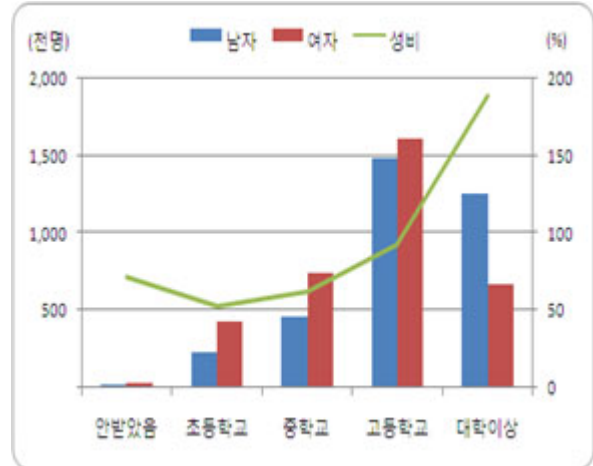
- 적절한 노후설계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베이비 부머의 현재 삶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베이비 부머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수준이 그 이전 노인세대에 비하여 매우 높다는 점이다. 즉 고등학교 학력이 보편화된 첫 세대라는 것이다. 이러한 베이비 부머의 교육수준의 상향은 인적 자본의 상승뿐만 아니라 정보 습득력의 향상,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의 상향조정, 권리 의식의 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또한 베이비 부머의 약 80%가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고 있고 있는데 이는 현세대 노인의 대부분인 83.0%가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는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아직 이들의 약 40%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이들의 정보화수준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이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정보 습득 능력이 높다는 점과 노후설계와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을 염두에 둔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1] 노인과 예비노인의 교육수준 비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중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그림 2] 베이비 부머의 교육수준 구성



자료: 통계청 (2012).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인구, 사회적 특성분석

□ 다음으로는 베이비 부머의 가족자원이 변화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정순돌, 2011). 무엇보다 먼저 이들의 삶에서 자녀의 구체적인 역할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자녀가 없는 비중이 5%선으로 노년기의 사회와의 연계를 제공할 수 있는 자녀가 없는 노인이 증가할 것임을 예상케 한다. 또한 비공식 지원의 중심인 자녀의 수도 2명 미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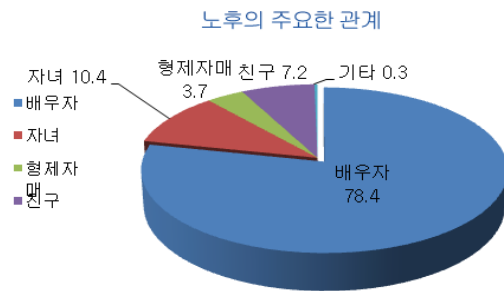
- 반면 부모 생존율이 높은 상태로 일정 기간 동안 부모수발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실제 수발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베이비 부머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베이비 부머는 자신의 노후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 부모부양에 대한 관심과 준비를 동시에 관심범위에 두어야 한다.
- 부부관계 중심으로의 변화 또한 이들이 경험하는 변화이다. 핵가족화 및 가족주기 변화로 배우자와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개인의 삶에서 배우자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고, 노후에 부부끼리만 생활하고 싶어하고 있다(정경희 외, 2010, 2014;한경혜, 2012). 현재까지의 생활에 비하여 중요성이 높아지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가가 노후생활 준비에 있어 중요할 것이다.

〈표 1〉 베이비 부머의 가족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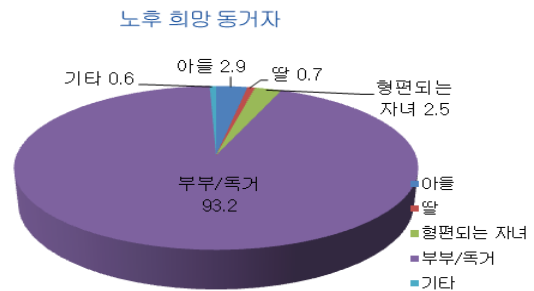
	전기 베이비 부머	후기 베이비 부머	59-63세 (2014 기준)	65세 이상 (2014 기준)
	55-59년생	60-63년생		
유배우율	85.8	85.4	83.8	61.4
무자녀율	4.9	5.3	4.0	2.3
총자녀수	2.0	1.9	2.3	3.4
형제자매수	5.2	5.0	5.2	2.7
본인의 부모 생존율	53.3	70.3	39.8	5.5

자료: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정경희 외(2010a)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그림 3] 베이비 부머가 예상하는 노후의 주요한 관계



[그림 4] 베이비 부머가 희망하는 노후 동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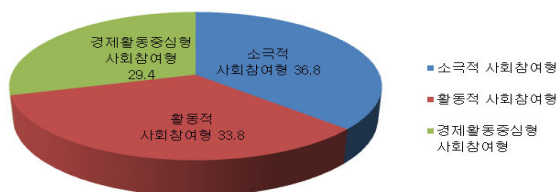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중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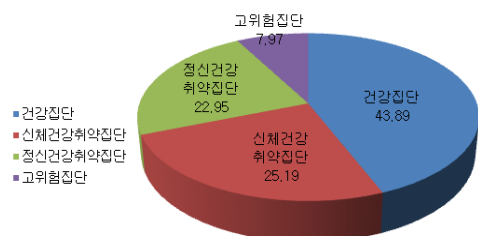
□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도출된다.

- 베이비 부머의 사회참여활동을 살펴보면 활동적 사회참여형은 33.8%에 불과하며, 소극적 사회참여형이 36.8%이며, 경제활동중심형이 29.4%로 다양한 사회참여를 통해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는 베이비 부머는 약 1/3에 불과한 상황이다. 사회참여활동이 일시에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경험이 이어지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다.
- 한편, 베이비 부머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약 절반 정도만이 건강집단이며, 나머지는 신체건강이나 정신건강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강 취약집단은 여성, 낮은 교육수준, 무배우, 비취업 상태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며, 운동·금연·절제된 음주 등과 같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진 비율이 낮다(김주현, 한경혜, 2012).

[그림5] 베이비 부머의 사회참여 유형



[그림6] 베이비 부머의 건강상태 유형



자료: 김윤정, 강현정(2013).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 참여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3), 10, 1090-1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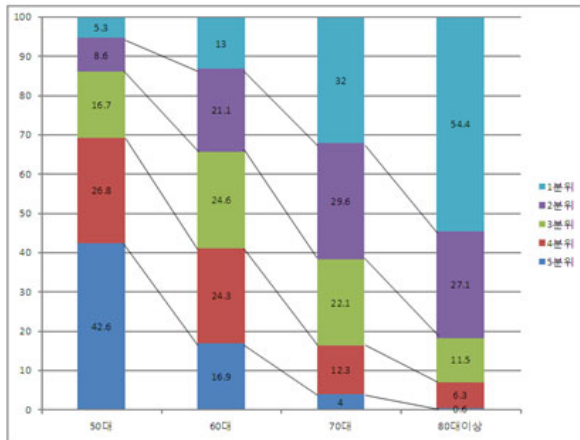
김주현, 한경혜(2012).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상태에 대한 잠재유형. 한국인구학, 35(3), 57-85.

- 가계금융조사에 의하면 73.5%가 공적 연금을 수급하지만, 평균수급액은 월 35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베이비 부머 인구 중 68.7%가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성별 차이가 있어 남자는 85.3%, 여자는 51.7%가 가입이력을 가지고 있다. 자산의 경우 총자산이 약 3억 9천만원이며, 총부채 5천 2백만원, 순자산 3억 4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금융자산은 약 6천 3백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별도의 근로소득을 얻지 못할 경우 은퇴 이후 소비지출에 제약이 예상된다. 즉 절반 이상이 자산축적 규모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다수가 노후생활을 미리 준비할 여유가 없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박지승, 2012).
- 베이비 부머의 대부분이 경제활동 경험이 있으며, 79.7%는 현재도 일을 하고 있으며, 일을 하지 않는 비율은 20.3%이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의 54.2%는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일을 계속하고 있고, 25.5%는 최장종사 직종과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직업의 경우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여, 화이트칼라비율과 블루칼라 비율 유사하고, 41.1%가 상용직 임금근로자이며, 22.2%가 임시직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 20.0%가 자영업자이다. 10명중 3명은 현업에 대해 불안을 느끼며, 소득 및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불안도 높다. 현업중단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만 특별히 준비하는 것은 없다(정경희 외, 2010b).

□ 삶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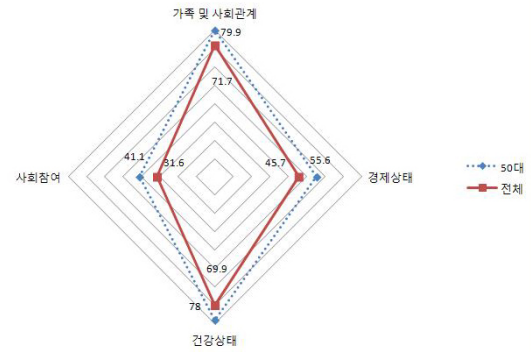
- 위에서 삶의 각 영역별로 베이비 부머의 생활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생활 현황을 종합하여 살펴본 정경희 외(2013)의 연구에 의하면 정확히 베이비 부머만을 대상으로한 결과는 아니지만 베이비 부머와 유사한 연령군인 50대의 삶의 질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분위가 42.6%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1분위 비중이 크다. 즉 현재 다른 연령군에 비하여 삶의 질이 높지만 노화가 진전될수록 삶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50대가 모든 영역에 걸쳐 타 연령군에 비하여 삶의 질이 높기는 하지만 여전히 영역별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즉, 『경제상태』와 『사회참여』의 삶의 질이 『가족·사회관계』와 『건강상태』 영역에 비하여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경제상태』와 『사회참여』의 삶의 질이 낮고 노화가 진전되어도 이러한 현상을 지속될 것이므로, 삶의 질의 저하와 더불어 영역별 불균형을 해결하는데 노후준비의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7] 연령군별 삶의 질



정경희 외 (2013).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그림8] 50대의 영역별 삶의 질



3. 베이비 부머의 노후준비 실태

□ 이삼식 외(2013)에서 제시한 노후준비지표에 기초하여 노후준비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본 연구 역시 베이비 부머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실시되고 있지 않지만 2013년 현재 베이비 부머가 50-58세라는 점에서 50대에 대한 결과를 통하여 베이비 부머의 노후준비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 노후준비지표는 여가영역, 대인관계영역, 건강영역 및 재무영역의 4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포함된 지표는 총 51개이다. 여기에는 노후준비 상태 관련 지표 19개와 노후준비 실천 관련 지표 32개가 포함되어 있다. 영역별 지표의 수를 살펴보면 여가영역 6개, 대인관계영역 11개, 건강영역 15개 및 재무영역 19개이다.

〈표 2〉 노후준비지표 체계

구분	지표수	노후준비 상태 관련		노후준비 실천 관련	
		하위영역	지표수	하위영역	지표수
계	51개	-	19개	-	32개
여가영역	6개	노후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3개	노후대비 여가실천행위	3개
대인관계영역	11개	현재 대인관계 상태	7개	노후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실천	4개
건강영역	15개	현재 건강상태	5개	노후건강상태 인식 및 실천행위	10개
재무영역	19개	현재 노후준비여건 및 인식	4개	노후 재정안정성을 위한 실천행위	15개

- 영역별 노후준비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건강영역, 대인관계영역, 여가영역, 재무영역 순으로 노후준비수준이 높다. 이러한 패턴은 수준 차이는 존재하나 남성과 여성에게서 공통적이며, 생애주기별로도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 영역별 성별 생애주기별 노후준비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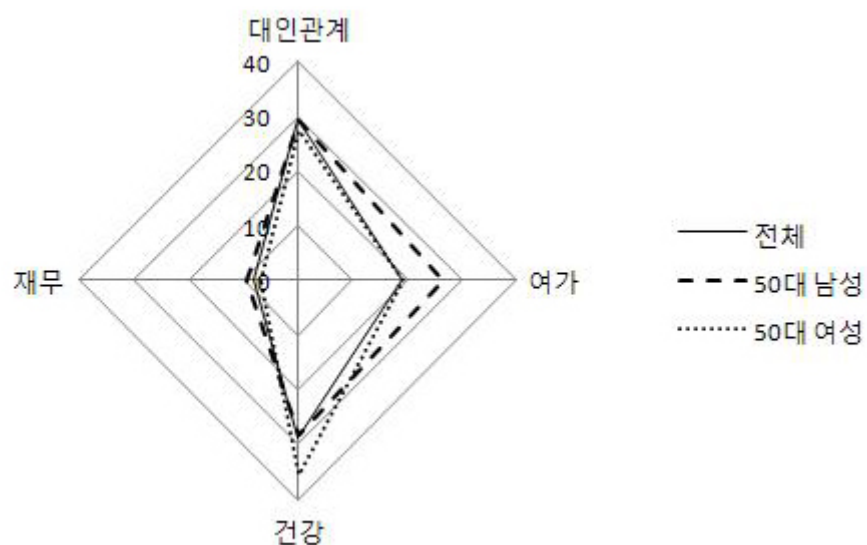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영역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남성	여가영역	56.6	58.4	57.2	53.2	56.9
	대인관계영역	61.6	61.3	62.8	59.7	61.5
	건강영역	66.8	67.2	67.8	67.6	67.4
	재무영역	50.4	51.4	52.6	51.1	51.6
여성	여가영역	53.3	54.0	52.7	50.5	52.8
	대인관계영역	66.0	63.8	61.5	56.4	62.0
	건강영역	71.9	72.0	71.4	69.5	71.3
	재무영역	52.3	51.2	51.6	46.0	50.5
전체	여가영역	55.0	56.2	55.0	51.8	54.8
	대인관계영역	63.7	62.5	62.2	58.0	61.8
	건강영역	69.3	69.5	69.6	68.6	69.4
	재무영역	51.4	51.3	52.1	48.4	51.1

- 50대의 노후준비 실태를 살펴보면

- 남성의 경우, 대인관계와 건강에 대한 노후준비정도는 40대와 유사하나 건강에 대한 노후준비는 다소 개선된 반면, 재무에 대한 노후준비는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의 경우는 대인관계, 건강 및 여가에 대한 노후준비는 40대와 유사한 수준으로 비교적 높으나 재무에 대한 노후준비는 여전히 열악하다.

[그림9] 50대의 영역별 노후 준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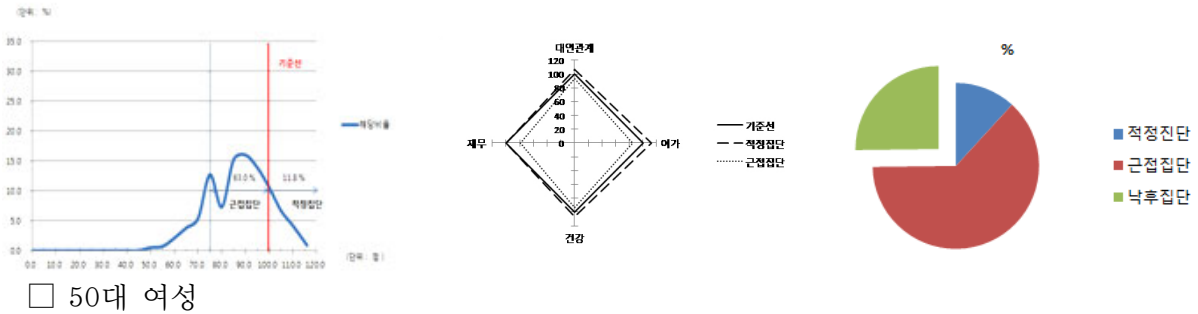
□ 노후준비현황 유형화

- 4대 영역별 노후준비기준선의 평균을 구한 다음 개인의 실제 노후준비점수(가중치 적용)의 평균과 비교하여 노후준비 실태를 유형화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집단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 4대 영역 노후준비기준선의 평균 이상을 달성한 집단(노후준비 적정집단)과 기준선 평균을 달성하지 못한 인구 중 상위 25%에 해당하는 집단(노후준비 근접집단)을 추출하여 비교하였다.
- 적정집단은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원만하게 이루어진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집단은 생애주기에 따라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데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근접집단은 스스로 노력을 더 하면 기준선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물론, 적정집단과 함께 근접집단의 경우에는 기준선 도달과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교육이나 컨설팅 등이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 한편, 적정집단과 근접집단에 속하지 않은 집단 즉, 기준선 하위 75%에 속하는 집단의 경우(낙후집단)에는 기준선에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기준선 도달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 50대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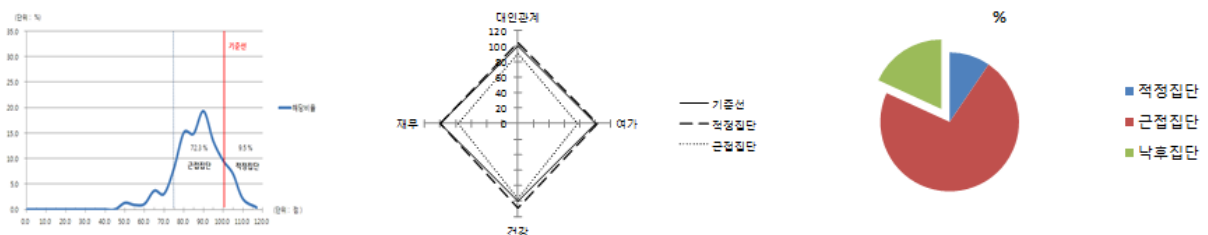
- 노후준비 적정집단은 11.8% , 노후준비 근접집단은 63.0%이며, 25.2%는 기준선 하위 75%에 속해 있어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 적정집단(모든 영역 평균이상) 노후준비 영역별 평균점수를 산출해보면, 대인관계영역(106.5점), 여가영역(112.8점) 및 건강영역(107.1점)은 모두 기준선을 상회하며, 재무영역(99.7점)은 기준선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다.
- 근접집단(기준선 평균 미달성 집단중 상위 25%): 대인관계영역(93.4점)과 건강영역(94.0점)이 기준선에 근접해 있으나, 여가영역(85.4점)과 재무영역(79.2점)은 낮은 수준으로 기준선에 도달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다.
- 낙후집단(기준선 하위 75% : 대부분 영역에서 노후준비를 위한 노력이 상당히 요구된다.

[그림10] 50대 남자의 노후준비 실태



- 노후준비 적정집단은 9.5% , 노후준비 근접집단은 72.3%이며, 18.2%는 기준선 하위 75%에 속해 있어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 적정집단(모든 영역 평균이상)의 노후준비 영역별 평균점수를 산출해보면, 모든 영역이 100점을 넘는다.
- 근접집단(기준선 평균 미달성 집단중 상위 25%)의 경우, 건강영역(96.7점) 만 100점에 근접하며, 대인관계영역(89.8점)과 여가영역(76.9)과 재무영역(77.3점)으로 상대적으로 기준선에서 멀리 있어 많은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낙후집단(기준선 하위 75%) : 대부분 영역에서 노후준비를 위한 노력이 상당히 요구된다.

[그림11] 50대 남자의 노후준비 실태



□ 50대의 노후준비 유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현저한 노후준비결핍형(abcd) 40.7%
- 잠재적 노후준비 결핍형(50,9%)
- 3개 영역 결핍(33.8%): 여가·대인관계·재무결핍형(abCd) 13.0%, 여가·건강·재무결핍형(aBcd) 10.3%, 대인관계·건강·재무결핍형(ABcd) 6.1%, 여가·대인관계·건강결핍형(abcD) 4.4%

- 2개 영역 결핍(17.1%): 여가·재무결핍형(aBCd) 6.1%, 대인관계·재무결핍형(AbCd) 5.7%
건강·재무결핍형(ABcd) 3.4% 등
- 노후준비 충분형(6.7%): 재무결핍형(ABCd) 5.7% 등
- 노후준비 이상형(0.4%): ABCD

〈표 4〉 노후준비 16개 유형 분포

(단위 :%, 명)

소속 유형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명)
노후준비 이상형 (ABCD)			0.4	0.2	0.4	0.3	0.3(5)
노후 준비 충분형	1개 영역 결핍	여가결핍형(aBCD)	0.4	0.2	-	-	0.1(2)
		대인관계결핍형(AbCD)	0.4	0.2	0.8	-	0.4(6)
		건강결핍형(ABcd)	-	0.4	0.2	-	0.2(3)
		재무결핍형(ABCd)	2.1	4.7	5.7	3.4	4.4(66)
잠재적 노후 준비 결핍형	2개 영역 결핍	여가·대인관계결핍형(abCD)	-	1.3	0.2	0.4	0.5(9)
		여가·건강결핍형(aBcd)	2.1	1.1	1.1	0.8	1.2(18)
		여가·재무결핍형(aBCd)	5.9	5.6	6.1	3.0	5.3(81)
		대인관계·건강결핍형(AbcD)	0.4	0.8	0.6	0.4	0.6(9)
		대인관계·재무결핍형(AbCd)	1.3	4.5	5.7	5.2	4.5(68)
		건강·재무결핍형(ABcd)	2.1	3.2	3.4	3.4	3.1(47)
	3개 영역 결핍	여가·대인관계·건강결핍형(abcD)	5.0	5.8	4.4	1.9	4.6(69)
		여가·대인관계·재무결핍형(abCd)	17.2	10.1	13.0	13.1	12.7(192)
		여가·건강·재무결핍형(aBcd)	13.0	12.2	10.3	6.7	10.8(163)
		대인관계·건강·재무결핍형(Abcd)	3.8	6.2	6.1	4.5	5.5(83)
		현저한 노후준비 결핍형 (abcd)	44.5	43.5	40.7	55.4	44.9(680)
	전체(N)		100.0 (238)	100.0 (534)	100.0 (477)	100.0 (267)	100.0 (1,516)

4. 정책과제

가.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을 넘어 구체적인 설계로

- ☐ 최근 노후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실제로 본인의 노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베이비 부머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인의 노후에 대하여 자주 가끔 생각하는 비율은 78.1%이지만, 생각하지 않는 비율도 8.7%에 불과하며, 자주 생각하는 사람은 약 1/3에 불과하다. 따라서 막연한 불안과 관심의 단계를 넘어서 구체적인 설계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 ☐ 아직 구현되지는 않았지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계획이 마련되고 있기는 하다. 국회 본회의(5.28)에서 '노후준비지원법안'이 의결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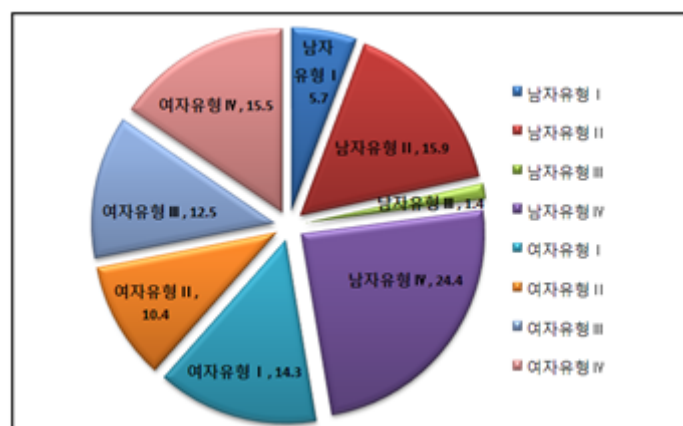
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노후 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수행토록 하고,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기업이 밀집해 있는 공단·지역 행사 등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연금공단 지사가 없는 지역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을 '지역 센터'로 지정·운영할 계획에 있다. 현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내연금이라는 제목으로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온라인 상담중이다.

나. 현재 삶의 질이 낮은 집단의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

□ 베이비 부머층 노후준비가 상태가 현저히 낮은 집단이 40%에 달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노후준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한번에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현실도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적 책임이 집중되어야 할 대상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성, 경제상태와 종사상의 지위를 활용한 베이비 부머의 유형화를 해 보면, 소득수준도 평균 이하인 저소득층이면서 청장년기의 대부분을 불안정하거나 독자성이 결여된 종사상의 지위를 경험해온 유형(유형 I)이 20%로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공적 책임이 요구된다.

- 유형 II: 소득수준은 평균 이하로 저소득층이지만 비교적 청장년기의 대부분을 안정하고 독자성이 있는 경제활동을 해온 유형 (26.3%)
- 유형 III: 소득수준은 평균 이상으로 중상층으로 볼 수 있으나 생애에 걸친 경제활동은 불안정하거나 독자성이 결여되었던 특성(13.9%)
- 유형 IV: 소득수준도 평균 이상으로 중상층이면서 생애에 걸친 경제활동도 안정적이고 독자적이었던 유형(39.9%)

[그림12] 베이비부머의 삶의 질 유형



다. 유형별 맞춤형 정책적 대응

□ 베이비 부머는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 내부적인 다양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각 유형별 특징을 반영한 우선 과제를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 저소득층의 경우, 남자는 공적 연금에 가입하기는 했으나 지속적인 불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연금 수급액이 적으로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비 부머에 대한 공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되며, 여자의 경우는 가입률 자체가 낮으므로 가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통하여 공적인 노후소득준비를 출발시켜야 할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남자 저소득층 베이비 부머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그러한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작동시킴으로써 소득창출 수단으로서의 경제활동이 노년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저소득층 남녀 베이비 부머는 모두 현재의 삶에 매몰되어 있어 노후에 대한 준비와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무료 노후설계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노후의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이외에도 예방적인 측면에서 건강검진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또한 남자 저소득층의 경우 노후생활에 있어 배우자의 중요성이 매우 크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부부관계 강화 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 중상층 베이비 부머의 경우 성과 종사상의 지위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노후에 있어 사회적 기여활동이 가능하며 또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자원봉사활동의 연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여자 중상층 베이비 부머는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실천율이 높은 대상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화된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

〈표 5〉 베이비 부머의 유형별 우선 정책과제

	유형Ⅰ	유형Ⅱ	유형Ⅲ	유형Ⅳ
남자	•일자리 창출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공적연금 미불입 대상자에 대한 불입 촉진 •공적인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공적연금 미불입 대상자에 대한 불입 촉진 •건강증진 정책 - 특히 기능직 직원 대상의 직장 프로그램 활성화 •부부관계 강화 프로그램	•지역 내 보건소 등을 활용한 흡연, 금주 프로그램 •사회적 기여 활동 활성화	•사회적 기여 활동 활성화
여자	•연금가입 활성화 •건강검진 참여 촉진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운동 촉진 •공적인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연금가입 활성화 •지속적인 건강검진과 사후 관리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전문화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전문화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라. 노후준비 부족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대안 마련

☐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무소득배우자(전업주부 등) 보험료 대납분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 완화 등이 필요하다. 최소가입기간의 경우 선진국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다(독일 5년, 영국, 캐나다, 스위스 1개월 등). 현재 15년10년으로 변화해온 최소가입기간을 더욱 완화하여 5년으로 조정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
- 근로소득과 자영소득의 합산도 요구된다. 보험료 부과 및 연금산정시,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 자영자등 지역가입자는 근로소득과 자영소득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도 근로소득과 자영소득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가입자 구분없이 근로소득과 자영소득 합산액을 부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편입 현상에 대응이라는의미도 있다.
- 소규모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 사업주 부담금 지원 대상을 30인 미만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해가야 할 것이다.
- 취약계층의 보험료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연금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경제활동 활성화

- 인력부족이 확실하게 예견되는 제조업의 경우 직업장 환경개선, 시간제 일자리 등을 통하여 중고령자 친화성을 제고해가야 할 것이다.
- 베이비 부머를 위한 창업 및 경영관련 인큐베이터 운영과 같이 자영업의 지속성 증대를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 구직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자기주도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를 촉진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등과 같은 근로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점진적 퇴직제도의 경우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적용을 통하여 확대해가고,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해가야 할 것이다.

☐ 여가문화활동 활성화

- 노년기의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를 강화하여 무위와 고독한 노년기를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직장 및 학교 중심에서 지역사회

회,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활동의 단위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대 공공시설(여성회관,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실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기반의 여가활동을 활성화시켜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가계금융조사(2011).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 소득, 자산 구조와 시사점(2013). 한국금융연구원
- 김윤정·강현정(2013).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참여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3), 10, 1090-1099.
- 김주현·한경혜(2012).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상태에 대한 잠재유형. 한국인구학, 35(3), 57-85.
- 박지승(2012). 우리나라 50대의 퇴직 후 일에 대한 인식 및 욕구조사,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 삼성경제연구소(2010).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 손양민(2010). 밥·돈·자유: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21세기북스.
- 이삼식·김재호·강은나·박수지·정경희·이윤경·이소정·염주희·이선희·배혜원(2013). 성별 생애주기별 노후준비지표 개발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염주희·황남희·김정석·이금룡·오신휘(2013).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오영희·이윤경·손창균·박보미·이수연·이지현·권중돈·김수봉·이소정·이용식·이윤환·최성재·김소영(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신창균·박보미(2010a).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외(2010b).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남상호·오영희·이소정·이윤경·정홍원·이은진·김성숙·류건식·신현구·정정숙·천현숙·한정림 (2011a) 베이비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현황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정경희·오영희·이윤경·박보미(2011b).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2012). 베이비 부머의 가족생활과 노후 생활 전망,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5.
- 정순둘(2011). 「타연령층과 비교한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 특성」 『베이비 붐 세대 미래구상 제7차 포럼 자료집』
- 통계청(2010). 통계로 본 베이비 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2010. 5. 10. 보도자료.
- 통계청(2012).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분석.
- 한경혜 외(2012). 베이비부머 삶의 변화와 지속성, 2010-2012.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 2차년도 보고서.

토 론 문

이 상 철 팀 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 우리 사회에 미치는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들의 안정적 노후준비가 시급하다는 점은 공감

○ 공무원연금 등 일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노후소득이 불충분한 상황

- 베이비부머의 73.5%가 공적연금을 수급하지만, 평균수급액은 월 35만원 수준에 불과(발제문 12p)

- 총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5.8%(6천 3백만원)로 부동산 (81.4%)의 1/5 수준에 불과해, 은퇴 이후 충분한 소비지출을 위한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추가 근로소득이 필요(발제문 12p)

○ 베이비부머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노후준비를 할 여유가 부족

- 퇴직 후 연금수급 시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자녀 학자금 및 결혼 자금 등의 목돈 수요가 크게 발생하는 시기

■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자발적 노후소득 보장 필요

○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를 위해 중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등 노동시장 정책과 균형있는 제도 개선을 도모해야 함

- 국민연금(1층)의 성숙과 더불어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으로 구성된 중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베이비부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함

※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수령 필요성이 점차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일시금 수령 비율(95.2%)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을 감안해 연금수령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연금화를 법적으로 강제화하는 것은 근로자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바, 강력한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

○ 한편 중소기업장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도입률은 오히려 저조한 바, 중소기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

〈 사업장 규모별 도입현황 〉

(단위: 개소, %)

구 분	10인미만	10 ~ 29인	30 ~ 99인	100 ~ 299인	300 ~ 499인	500인이상	합 계
(A)도입 사업장수	168,217	72,706	25,731	6,683	1,013	1,197	275,541
(B)전체 사업장수	1,435,703	182,026	55,552	11,390	1,468	1,337	1,687,476
도입비율 (A/B,%)	11.7	39.9	46.3	58.7	69.0	89.5	16.3

* (도입률) 300인 이상(대기업) 78.8%, 300인 미만 16.2%, 30인 미만 14.9%

* 2010.7월부터 사업장 통계는 퇴직연금사업자 계약건수로 집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형제도를 활용한 사업주 부담 경감을 통해 중소기업장 근로자 노후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사적연금 시장으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여야 근퇴법 개정안 내용 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통한 중소기업장 지원사항

: 30인 이하 사업장의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 10% 지원, 수수료 절반 지원

■ 베이비부머가 직접 대상이 될 60세 정년의무화는 우리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해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유연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 연금제도 개편을 통한 노후소득 문제해결 등은 단기간에 개선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

- 임금체계 개편 및 사업장의 제도 수용성 등의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화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60세 정년의무화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등 노동시장 내 제도 개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음

※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화에 직면한 일본의 경우, 1998년 60세 정년의무화 법안이 시행된 시점에는 60세 정년 기업 비율이 이미 93.3%에 이르는 등, 임금제도를 정비하여 제도 수용 기반을 조성한 후 제도 도입

- 청년 실업이 심각한 노동시장 현실을 고려할 때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장년 근로자들의 고용연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연성 제고, 임금체계 개편 등이 전제되어야 함

-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고용을 유지하면서 근로소득을 적립하는 것인 바, 베이비부머세대는 정년연장법('16년 300인 이상, '17년 전 사업장) 시행의 직접 수혜 대상이며,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을 감안해 임금체계 개편 등과 같은 조치가 선행·병행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연공급적 임금체계를 성과·직무중심의 임금체제로 개편해야 하며, 우선은 60세 정년 의무화와 임금피크제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근속연수별 임금격차(제조업) 국제비교 〉

	한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일본
1년 미만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년 미만	143.7	128.7	120.9	108.0	120.8	108.7	108.2	113.1	129.6
5~10년 미만	185.0	153.6	135.7	117.6	128.5	110.8	112.4	126.4	148.0
10~15년 미만	217.4	161.5	149.8	123.3	135.5	115.9	113.7	134.4	177.4
15~20년 미만	249.5	174.1	170.1	134.4	144.3	121.2	113.3	138.8	208.7
20~30년 미만	283.2	188.0	176.1	134.8	151.9	130.7	113.0	149.8	254.8

주 : 1) 한국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월정액급여 기준.

2) 일본 자료의 제약상 근속연수 범주는 1~5년 미만→1~4년 미만, 5~10년 미만→4~10년 미만.

자료 : 한국 노동부(2006),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일본 후생노동성(2006), 『賃金センサス』.

유럽 EURO(2006), Structure of Earnings Survey.

출처 : 노동연구원(2011), 『노동력 고령화와 임금체계 혁신』

■ 한편, 점진적 퇴직제도 도입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점진적 퇴직제도는 종전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별도로 보전해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나, 이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음

- 현재 고용보험제도에는 위 취지에 부합하는 급여 일부 지원제도(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가 존재하나, 국민연금 내 급여제공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식은 기업 및 근로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

- 또한 해당급여 수급자들은 노후 준비나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풍족한 계층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적절한지 의문

※ 근로소득이 주 생활자금원인 평균수준 근로자의 현실을 감안할 때, 소득감소가 수반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자발적으로 청구하는 근로자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 장년근로자 전직지원, 능력개발의 경우 단기간의 지원을 통해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 필요

- 장년근로자들이 10년 이상 근무했던 직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업무를 습득하기 위해서

는 수개월 정도의 전직지원, 능력개발로 충분하지 못함

○ 장년근로자 스스로의 눈높이 조절 등 인식개선과 충분한 능력개발, 전직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특히, 사무직의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이 없는 경우 기존 직장 퇴직시 급격한 근로조건 저하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 재취업 등에 어려움 존재

- 한편, 종합대책에서 제시하는 인력교류 활성화의 경우 일본의 출향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이며, 시범사업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제도 정착 필요

■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정책은 업종별로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들의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해야 함

○ 베이비부머는 기존의 고령층과 비교할 때 학력이 높고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이 다양*하므로 이들이 지니는 강점을 공공성과 결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발굴될 필요가 있음

※ 통계청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분석(2012)

토 론 문

김 현 수 박사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 팀장)

본 연구 자료는 우리가 왜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이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할 분야가 무엇인지를 축약적으로 설명해 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격적인 은퇴를 앞 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준비 정도를 지수화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발표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발표자료에서 나와 있듯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4.5%인 69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단카이세대(1947~1949년생)가 전체 인구의 5%, 미국 베이부머(1946~1964년생)는 약 30%, 독일의 베이비부머(1956~1965년생)는 1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²⁾, 일본의 제외하고 인구 비중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³⁾ 아울러 발표자료에서 나타난 특성과 더불어 1955년부터~1963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들을 제 나름대로 규정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한국전쟁 이후의 세대, 유년기 시절에는 전쟁이후 작계는 가정, 크게는 국가재건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한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지켜 본 세대,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정치적으로 격동의 80년대를 겪었던 세대, 그리고 외환위기와 세계금융위기라는 경제 격변을 겪었던 세대 그래서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의 최대 피해자인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 때문에 사회에 대한 자기주관이 비교적 뚜렷한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경희 박사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급격한 사회 및 가치관의 변화 속에 구세대와 신세대 사이에 끼인 세대, 일부 전문가들은⁴⁾ 베이비부머들을 희생세대가 아닌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정책의 수혜 계층으로 언급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해 자신들이 받게 될 공적소득의 일부를 젊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경희 박사가 지적하신 것처럼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세대가 베이비부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 연구 자료는 그 중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노후준비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최근에 많이 시도되고 있는 은퇴준비지수(“레인보우 은퇴준비지수,”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원과 삼성생명 주관; “피델리티 은퇴지수,” 피델리티 자산운용; 노후준비지표, 국민연금공단(2012) 등)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정량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베이비부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함으로써 정책당국이 보다 효율적인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2) 김경아·김현수(2013),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보장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2013

3) 일본은 베이비부머를 정의하는 기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

4) 김용하·임성은(2011),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vol. 31, no. 2, pp. 36-59

다만, 한 가지 아쉬우면서도 앞으로 좀 더 고민해야 할 문제로 “은퇴준비지수”의 지속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삼식 박사님 이하 연구진들께서 개발하신 것으로 발표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위와 같은 지수들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발표될 필요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피델리티 은퇴지수 정도가 정기적으로 조사되어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위와 같은 지수가 정책수립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지수의 연속성이 담보되어야 그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유효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러한 지수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를 개발하고 발표하는 주요 기관들의 꾸준한 관심과 조사를 위한 예산확보가 중요한 데,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피델리티 은퇴지수처럼 기존에 발표되는 통계자료들을 바탕으로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떠한 방법론을 취하든 은퇴준비지수를 개발하신 기관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유사한 결론을 얻는다면 그것만큼 신뢰도 있는 자료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박사님께서 은퇴준비지수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준비 영역별로 제시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은 그것들의 적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행정부나 입법부를 포함한 정책입안자들에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자는 정책의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 노후설계 및 연금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정책과제인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최초 진입하면서부터 노후준비를 시작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이비부머들의 노후준비가 부족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노후준비라는 개념이 개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 최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료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지난 5월 말 ‘노후준비지원법’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며 국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실시해 온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만간 보다 향상된 서비스로 국민들의 노후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책과제인 노후준비 부족 영역에 대한 관심 제고에서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의 완화를 제시하셨는데, 가입자들의 수급권 확보측면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도상 최소가입기간을 축소시키면 일시금 수급자가 연금수급(권)자로 전환되어 예상보다 연금지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최소가입기간

이 축소되면 짧은 가입기간을 가진 수급자의 수익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민연금기금 고갈 이후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긴 하나 현재는 미래세대의 연금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세대들이 가능한 한 자신들의 연금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얻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정책은 국민들의 정서와 국민연금의 제도 및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해외사례 자료 중 스위스의 경우, 부분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의 가입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도 1년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덧붙여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두 번째 정책과제인 노후설계 취약집단에 대한 관심 제고에서 베이비부머를 성별, 경제상태, 그리고 종사상 지위로 유형화하셨습니다. 이 때 “독자성”이란 개념이 나오는 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유형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자료의 의의는 베이비부머들의 특성과 노후준비정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정합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노후준비 영역별로 맞춤형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과 정책입안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 론 문

김 경 록 소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1. 발표문과 관련한 커멘트

- 1차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했는데 현재 54세~61세이다. 이들은 재무적인 면에서 노후 준비가 가장 안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 나이에 재무적인 준비를 새로 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보완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래서 1차 베이비부머뿐 아니라 2차 베이비부머(68년~74년, 600만명)도 그 실태 조사와 함께 대비책을 제시해주면 어떨까 한다. 연령이 42~48세이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 베이비부머는 경제 급성장기의세대이기도 하면서 자녀 교육비, 부모님 부양 등 낀 세대이기도 하다. 기대수명도 갑자기 길어지면서 100세 시대를 맞는 거의 첫 세대가 된다. 따라서 의외로 양극화된 성향이 나타난다. 평균적인 수준을 가지고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분화해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분포를 직접 파악해야 한다. 이런 접근은 우리나라에 아직 별로 없는 것 같으나 의미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베이비부머의 특성을 보면 삶의 질에서 50대는(지금 거의 베이비부머) 경제상태와 사회 참여가 낮고 가족·사회관계와 건강상태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다. 불균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경제적 준비는 지금 바로 닥친 현실이고 사회참여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참여가 어렵고, 건강상태는 아직 50대이어서 아픈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나타난 게 아닌지 생각된다. 가족관계 역시 아직 자식이 출가 전이 많기 때문에 가족중심의 구조일 수 밖에 없다. 50대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며 이것을 불균형적인 삶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이다. 삶의 질을 볼 때 연령별로 동일한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연령대에서 균형적이라고 생각되는 비율을 먼저 찾아보고 이것과 괴리가 심한 게 불균형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듯하다.

2. 보충 제언

(1)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징

- 1차 베이비부머만 분석대상으로 보지 말고, 베이비부머는 55~74년생으로 약 20년에 걸친 거대한 집단이라고 보면 좋다. **인구의 30%를 넘는 수준으로 사회에 거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 Cohort 측면에서도 독특하다. 97년 **외환위기** 때 이들의 나이가 22~43세였다. 한창 직장
에 있거나 직장에 들어가려는 때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33세~54세였다. 이 때 금융위기 여파로 구조조정 등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현대차,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대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하던 때였다. 이 시기에 어려운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 모아 두었

던 자금을 중간에 다 찾아 써버렸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외환위기 때 중간정산으로 많이 써버렸다. 양극화가 진행되었고 노후 준비도 잘 안되어 있다. 조기퇴직과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세대여서 54세 정도면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제2의 직장을 찾는다. 자영업자도 50대 이상이 절반에 이를 정도다. 부모세대가 오래 살면서 자식과 부모에 낀 세대가 되었고, 본인은 100세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의 첫 주자가 되었다. 한편 교육수준과 정보화 수준이 높고 민주화의 주역이며 변화에 잘 적응한다.

- 사회학적인 변화가 많은 세대다. 전통적 가족구조가 해체되던 세대였고 사회도 모바일로 전 세계가 연결되면서 관계망이 새롭게 외연 확장되었다. 그래서 매우 다양한 측면과 **발전 잠재성**을 가진 세대다.

(2)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 현황

- 재무적 노후준비 : 안되어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지금 50대는 노후가 되면 큰일날 듯한 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다. 수명이 길어지고 초저금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달에 300만원씩만 지출해도 10년 더 살면 3억 6천만원이 더 필요하다. 금리가 5%이면 원금이 두배 되는데 14년 정도 걸리는데 2%이면 36년이 걸리고 1%면 70년이 걸린다. 따라서 단순히 자산을 얼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월 일정한 소득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판단해보아야 한다. 국민연금을 80만원 받고, 70세부터 3억원 집을 주택연금으로 받으면 한달에 9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 House rich, cash poor인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제도이다. 결혼비용만 좀 줄여도 노후준비가 훨씬 편안해진다.
- 비재무적 노후준비 : 비재무적인 준비는 관심에서 멀고 측정기준도 아직은 깊지 않다. 주거, 시간활용, 주변의 사회적 관계, 건강(정신적, 육체적), 영속적인 일, 가족관계 등 많은 부분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비재무적인 현황에 대해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노후에 비재무적인 대비가 잘 되려면 과연 50대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도 연구해야 한다. 비재무적 영역은 실로 다양하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비재무적 영역에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미흡할 수 있다.

(3) 정책대응

- 캄브리아기 빙백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기회와 위험이 공존한다. 과거의 경험, 다른 나라의 경험보다 훨씬 다채롭고 다양한 세계가 펼쳐진다.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고령화를 발전적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는 개인과 국가 모두에 해당한다. 개인들은 시각을 넓게 보고 시간은 길게 보아야 한다. 퇴직 후 20년 이상 일한다고 생각

해야 하고 일할 수 있는 범위도 실로 다양하다. 국가는 이런 다양성의 장이 생산적으로 잘 펼쳐지게끔 해서 고령화의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해야 한다.

- 국가는 고령화사회의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인프라를 갖추어야 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위한 인프라도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여기에 걸 맞는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 필요가 있다. 고령화시대에는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반면에 금융자산은 증가한다. 줄어드는 노동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노동력의 발전적 활용이 필요하고, 축적된 금융자산이 장기투자를 통해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게끔 해야 한다. 그냥 놓아두어도 시장이 알아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부분은 국가에서 준비해주어야 한다. 연금제도가 대표적인 것이다. 이 외에도 생애 설계교육, 평생교육시스템, 재취업 인프라, 노후 금융자산의 운용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연금제도는 많은 부분이 보완되어 왔다. 세미나에서 지적된 것처럼 저소득은 여전히 준비가 덜 되어 있다. 또 하나는 퇴직연금 IRP에서 부분인출이 안되고 전액인출만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자금에 쑥이지 않고 목적자금으로 사용되어 중간에 소진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 시니어 취업 인프라를 잘 갖추어야 한다. 지금은 시니어 일자리들은 단순직에 머물러 있어서 전문성이나 경험을 대부분 활용하지 못한다. 급여도 1/4 전후 수준으로 떨어지며 일에서 보람을 느끼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전되면 많은 직종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들은 은퇴하는 시니어들이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분야다. 시니어 비즈니스는 향후 10년 이내에 다양하고 깊게 생겨날 것으로 본다. 직종도 소품대량생산보다는 다품소량생산방식에 가깝다. 직종들이 다양하게 생겨나므로 수요자와 공급자를 잘 연결해주는 네트워크나 정보망이 필요하다.

창직(創職)이나 취업을 권유하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단순 소자본창업을 권유하는 시스템은 지양되어야 한다. 직업 소개소 수준을 넘어서 취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이 공유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 좋다. 여기에 대한 수요는 10년 이내 대폭 확대된다. 현재 700만명에 이르는 1차 베이비부머는 10년 후에 63~71세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평생교육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교육의 비대칭이 크다. 대학교까지는 과다하리만치 학습을 한다. 스펙이나 경험 쌓기까지 합하면 엄청날 것이다. 대학 졸업 후는 깊이 있는 학습이 거의 없다. 두 가지 유형의 교육이 필요하다. 우선 40대 정도에 들어서면 자신의 전문성과 관련해서 인적자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두번째는 퇴직을 전후하여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하든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공부도

할 수 있다. 퇴직후 약 10만 시간이 있다고 한다. 이 중 1/10만 투자해도 만 시간이다. 만 시간이면 전문가가 된다는 10,000시간의 법칙도 있다. 생산적인 평생교육시스템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대학교는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줄어든 것이고 대학시설은 남게 된다. 자원의 배분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

- 연금투자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고령화로 금융자산은 축적되어 가는 반면에 금리는 초저금리에 접어들었다. 당분간 저금리구조를 벗어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1,000만원을 0.1%로 300년 운용하면 1,350만원이 되는데, 이를 5%로 운용하면 무려 22조원이 된다. 한 사회가 축적된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가 50, 100년 지나면 국가의 부를 다르게 만든다. 개인도 1%대의 금리에서는 자산축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5%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저축에서 투자로 자산을 옮겨야 하나, 투자는 어려운 영역이다. 이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향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게 될 텐데 연금을 어떻게 투자하는 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생애설계교육을 각 부문 전반에 걸쳐 실시해야 한다. 생애설계교육은 재무적인 측면에 많이 치우쳐왔고, 보험설계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상품 판매와 연관되어 해왔다. 향후 100세 시대에는 평균수명이 길어지므로 재무, 비재무 분야의 균형 잡힌 생애설계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직장에서 이런 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하고 직장이 아닌 자영업자나 주부 등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한다. 중고등학교 경제교육도 경제에 치중해 있으며 금융부분은 적고 재무와 비재무를 아우르는 생애설계교육은 아주 미흡하다. 생애설계교육이 있어야 재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유인이 생긴다.
- 주택연금을 잘 활용해야 한다. 주택연금은 노후에 고정자산을 유동화하는 좋은 방식이다.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노후자금의 부족분을 상당 부분 채워줄 수 있고 그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고령화 시기에 소비가 둔화되는 것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그냥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를 유동화해서 소득을 발생시키게 되면 자연스레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주택은 가지고 있다가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관념이 강한데 향후 100세 시대에는 집을 물려줄 때 자식은 60, 70세가 되어 있어 별로 의미도 없다. 많은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 비재무적 파산을 경계해야 한다. 실태조사를 봐도 마치 재무만 해결하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노인 자살률이 턱 없이 높기 때문이다. 가족관계의 해체, 우울, 무력감 등도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비재무적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낭패를 당하는 것을 비재무적 파산이라고 불러야 하고 이를 경계해야 한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어서 관계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퇴직 후 10만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생산적으로 돌리면 사회도 강건해지고 개

인도 강건해지지만, 비생산적으로 보내면 무력감이 지배한다.

50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비재무적 어려움은 별로 없을 것이라 답할 것이다. 너무 바쁘고 만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자식들 문제로 가정이 북적거리는 데 무슨 그런 걱정을 하겠는가? 그래서 재무적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막상 퇴직을 하고 자녀가 출가를 하게 되면 모든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다. 재무적 문제보다 비재무적 문제가 부각된다. 젊을 때는 재무적 문제가 주된 이슈이지만 퇴직 후에는 비재무적 문제의 비중이 상당히 커진다. 더욱 위험한 것은 그 심각성을 50대에는 인식하지 못하며 닥쳐서야 알게 된다는 점이다.

재무적 문제뿐 아니라 비재무적 문제도 균형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비재무적 문제는 너무 단순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조사와 연구, 그리고 대응이 필요하다.

부 록

- **본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 **토론회 관련 기사**
- **공지사항**

<본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1차> 2009. 12. 10 오전 11시, 창립기념 제 1차 토론회 개최

주 제 : **미래한국 복지건설을 위한 신구상**

주제 발표: 강욱모 (국립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 론 자:

- 1) 김병숙 교수(건국대학교행정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2) 김창남 교수(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정치학박사)
- 3) 조순태 소장(강남성폭력상담소, 한국사회문제연구원)
- 4) 정무성 교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축 사 : 박범진 前 총장(한성디지털대학교/ 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2차> 2010. 02. 25 토론회 성남 신청사 대강당(온누리관)개최

주 제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발전의 과제**

주제발표: 백종만 학장(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토 론 자:

- 1)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 2) 장향만 사무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지역복지과)
- 3) 이해련 교수 (경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4) 장윤영 도의원 (한나라당)
- 5) 지관근 시의원 (민주당)

축 사 : 장석권 前단국대 총장

김경우 회장(성남시 사회복지연합회/을지대 교수)

3차> 2010. 07. 12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중심으로**

주제 발표: 정무성 원장

(前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위원)

토 론 자:

1. 박헌준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소장)
2. 김재춘 정책국장 ‘아름다운가게‘
3. 정태길 사무국장 ‘함께 일하는 재단
4. 박찬민 총괄실장(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5. 윤 준현 대표(주)에이스푸드
6. 모동희 대표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 (예비사회적기업)

축 사: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축사문 보내주신분 :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언론---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1부 사회 :이승훈 교수 (국제대학교)

2부 사회: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4차> 2010. 10. 01 토론회 성남시청 3층 대회의실

주 제 : **고령화시대 경제성장의 뒀안길에 선 한국 노인들**

주제발표: 최성재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

토 론 자 :

1. 나임순 교수 (백석대)
2. 신영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3. .곽순헌 서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4. 김영진 회장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축 사 : 차 홍 봉 前보건복지부 장관

(2013년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 대회장)

후 원: 성남시,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1부 사회 :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5차> 2011. 2. 1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주 제 : **저출산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주제발표자: 이삼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토 론 자:

1. 정영훈 과장(대통령직속기관 미래기획위원회 사회복지정책과)
2. 도미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3. 안명옥 이사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17대 국회의원)
4.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축 사: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차홍봉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前 보건복지부장관)

오영숙 총장 (前세종대총장)

축 가 : 장선주 (바리톤). 이동형 (테너)

후 원: 보건복지부, 대통령미래기획위원회, 롯데백화점

1부 사회 : 도미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언론-mbc뉴스토론회 풀영상 및 연합뉴스, 데일리안, 뉴시스, 뉴데일리,조선일보

6차> 2011. 6.14 토론회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주제발표자: 김용하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 론 자 :

- 1) 김미혜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 2) 이기영 단장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 총괄)
- 3) 우재룡 소장 (삼성생명은퇴연구소)
- 4) 최용민 님 (베이비부머해당 토론자 신청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축 사 : 김성이 前보건복지부 장관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회장

오카리나 특별연주 : 오영숙 前세종대 총장(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 실버학과)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삼성생명, 한국경제신문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뉴시스 및 6개 언론사 기사 게재

7차> 2011. 9. 2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주제발표자 :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토 론 자 :

1. 박용오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 홍백의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김재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
4. 장상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선무

축 사: 심윤종 前 성균관 대학교 총장/국민희망포럼 이사장

후 원: SK사회적기업지원단

1부사회: 박서영 교수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사회: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본 연구회 이사)

***뉴시스 및 연합 등 5개 언론사기사

**8차> 2011. 12. 20 본 연구회 창립 2주년 기념 제 8차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 봉사하는가?-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

주제발표: 강철희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 1) 강학봉 사회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

- 2) 임혜성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장
- 3) 박대석 cj 나눔 사무국장
- 4) 김현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회장
- 5) 안명옥 전국회의원/나눔공동체

축 사 :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본 연구회 고문

김원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보건복지부, IBK기업은행, CTS기독교TV

축 가 : 소프라노 이윤순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 , 'Memory'(추억) , <캣츠>

1부 사회 : 석말숙 교수(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선진사회복지연구회)

***연합 및 언론사 6기사보도

9차> 2012. 3.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주제발표자 : 홍경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1. 박미출 (일반시민토론자 신청공모자에서 선정)
2. 허준수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숭실대 사회복지학과)
3.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장
4.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본 연구회 이사)
5.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축 사 : 조 성 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 인 복 회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구 본 홍 사장 (cts기독교TV)

최 란 이사장(대한민국 서울문화예술협회)

후 원 : 고용노동부, CTS기독교TV

협 찬 : 대구은행

1부 사회 : 나임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연합 ,뉴시스 및 5개 언론 기사

10차> 2012. 6. 26.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주제발표자 : 이 준 영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 1) 신인석 교수 (중앙대 경영학과)
- 2) 이의영 교수 (경실련 전 상집위원장/ 군산대 경제학과)

3) 김광기 경제선임기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축 사 : 심윤중 총장 (前 성균관대학교 / 국민희망포럼 이사장)
 임성택 총장 (그리스도대학교)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미래정책연구원
 1부 사회 :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학과/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mbc 뉴스 토론회풀영상

11차> 2012. 10. 25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주제발표자 : 신 영 석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 론 자 :

- 1) 김동섭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 2) 이준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 3)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 4)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 5) 김선희 한노총 사회정책국장
- 6) 윤철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축 사 : 김정례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양근 부총장/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홈페이지

1부 사회 : 나임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12차> 2013. 3 7(목) 사단법인 허가 및 창립 3주년기념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주 제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주제발표 : 허준수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부/경실련사회복지위원장)

토 론 자 :

- 1) 신성식 기자(중앙일보 사회복지전문)
- 2) 정은상 님(일반시민패널공모 선정)
- 3) 현진권 소장(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 4)김동열 실장(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수석연구위원)
- 5) 김명훈 박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강남세브란스병원사회사업팀장)
- 6)김재진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축 사 :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전 법무부장관)

김영래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오제세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

측시낭송 : 정윤경(본 연구회 운영위원)

후 원 : 국민건강보험

1부 사회 : 도미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이정숙 회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13차> 2013. 7. 5 (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주제발표 : 안상훈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토 론 자:

- 1) 김정근 박사(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 2)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3) 이창곤 소장(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 4) 유종일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 5)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측 사 :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본 연구회 고문

오영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현대자동차

1부 사회 : 정윤경 소장 (말샘/글샘언어교육연구소/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이정숙 회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14차> 2013. 11. 14 (목)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

주제발표 : 강명순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빈곤퇴치회)

토 론 자:

- 1) 박병현 교수(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 이태진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 3) 서병수 소장(한국빈곤문제연구소)

측 사 : 조성철 회장(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영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국민연금공단

1부 사회 : 김혜숙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부 사회: 이정숙 회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

15차> 2014. 4.30 토론회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관 501호

제 1 주제 '**저출산 원인과 대책**'양찬희 과장(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제 2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

.....이삼식 박사(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

제 3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 및 일.가정 양립정책'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남서울대학교 교수

좌 장 : 김한곤 회장(한국인구학회/ 영남대학교 교수)

토 론 자:

1 : 박미숙 (천안시 여성가족과장)

2 : 김태희 (백석문화대 교수/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장)

3 : 이명숙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4 : 이은하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 가정분과장)

축 사: 공정자 총장 (남서울대학교)

주 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천안시, 남서울대학교

후 원 : 보건복지부

16차> 2014. 6. 20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주제발표자 : 황명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장 :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 론 자 :

1 : 양점도(한국복지행정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교수)

2 : 구중희(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3 : 양성근(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4 : 권오영(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변호사)

5 : 이동우(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축 사: 최성균 회장(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

사 회 : 김준경 교수 (남서울대학교)

17차> 2014. 10. 22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하여 요청으로 제공)

주제발표자 : 김진수 교수(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장 :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 론 자 :

1 :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2 : 최진봉(성공회대학학교 신문방송학과)

3 : 유근형기사(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축 사: 박범진 이사장 (미래정책연구소/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고문)

사 회 : 김혜숙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8차〉 2015. 2. 26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하여 요청으로 제공)

주제발표자 : 최 균 교수(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 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1 : 고수선 연구위원(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2 : 유근춘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 김은주 소장(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야 전문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소)

4 : 김원섭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5 : 은성호 과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과)

축 사: 유 지 수 총장(국민대학교)

1부 사 회 : 조명숙 교수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토론회 사회: 이정숙 회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및 본 연구회 관련 기사>



"통일 후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모형이 바람직"

지난달 26일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 주제로 토론회 열려
최균 교수 "남북한 통일 형태는 점진적인 1국가 1체제"



▲ 지난 2월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

남북관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통일 이후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지난 2월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지수 국민대학교 총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최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장(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나온 지 1년여가 흘렀다"며 "독일의 경우 통일 후 공공부조 등 통일비용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를 우리나라도 통일을 대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남북한 주민의 생활수준과 복지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커서 복잡,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한 통일 형태는 점진적인 1국가 1체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모형이 바람직하다"며 "북한은 1990년 이후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국가의 지불능력 부족이 국가사회주의 원칙 하에서 제공하던 사회복지체계의 배급제도와 무상의료가 붕괴해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 후 인구이동 허용을 대비한 각종 제도 체계의 호혜성 확대를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의 사회복지재정과 지출과 관련된 정확한 수요예측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서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한 우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남북한 사회복지체계의 통합과 관련된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범사회적 기구인 '통일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은주 소장(한국여성정치연구소·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야 전문위원)은 통일 준비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구경꾼이 아닌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소장은 여성의 무관심은 여성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통일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유근춘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남북한 사회보장체계통합방안은 현실성을 기반으로 하여 잠정 분리 운영을 하되, 인도적 측면과 한 국가라는 당위에 대한 고려를 통해 잠정적 설득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유 박사는 북한이 붕괴시 대량 이민과 관련하여 정치적 통합이전에 북한의 응급 거버넌스와 긴급구호 단계에서 북한의 기존 의료시스템을 이용하고, 남한은약품, 전기 등 물자지원을 통해 일차적으로 보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윤정선 기자]

공감/연/론 뉴시스
NEWSIS

"남북한 사회보장체계통합방안 논의 시작해야"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의 사회보장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27일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독일의 경우 통일 후 공공부조 등 통일비용의 절반이 차지했다"며 "우리나라도 통일을 대비한 본격적인 사회보장제도 통합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남북한 주민의 생활수준과 복지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커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남북한 통일 형태는 점진적인 1국가 1체제 형태가 될 것이며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모형이 바람직하다"며 "통일 후 인구이동 허용을 대비한 각종 제도 체계의 호혜성 확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북한의 사회복지재정과 지출에 관한 정확한 수요예측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서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한 우회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남북한 사회복지체계의 통합과 관련된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범사회적 기구인 통일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현실성을 기반으로 남북한 사회보장제도를 잠정 분리 운영하되 인도적 측면과 한 국가라는 당위를 고려해 설득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박사는 또 "북한 붕괴 시 대량 이민과 관련해 정치적 통합 이전에 북한의 응급적인 거버넌스와 긴급구호 단계에서 북한의 기존 의료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며 "남한은약품·전기 등 물자지원을 통해 1차적으로 보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aero@newsis.com

NewDaily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학술토론회 “통일 대비 사회보장 체계 통합방안 시급”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2월 26일(목)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열었다.

유지수 국민대학교 총장의 축사와 이정숙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최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이 맡았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복 70주년인 올해, 독일의 예를 본받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균 교수는 “남북한 주민의 생활수준과 복지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커서 복잡, 다양한 문제가 초래 될 가능성이 높다” 며, “남북한 통일 형태는 점진적인 1국가 1 체제 형태가 될 것이며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모형이 바람직하다” 고 전망했다.

이어 최 교수는 “북한은 1990년 이후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기본적인 배급제도와 의료체계가 붕괴돼 있다” 면서 이에 관한 선행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북한의 사회복지재정 및 지출과 관련된 정확한 수요예측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다” 며,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한 우회적 접근이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최균 교수는, 남북한 사회복지체계의 통합과 관련된 논의 활성화를 위해 범사회적 기구인 ‘통일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은주 소장(한국여성정치연구소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야 전문위원)은 통일 준비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구경꾼이 아닌 주체로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주 소장은 통일에 대한 여성의 무관심을 우려하면서, 자녀들의 통일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여성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근춘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남북한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은 현실을 고려해, 잠정적으로는 분리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유근춘 박사는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긴급구호단계에서 북한의 응급의료체계를 이용하고, 한국은약품, 전기 등 물자적 지원을 통해 일차적으로 보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 > 사회 > 노동·인권·복지

‘孝’ 는 어디에... 학대에 멎드는 노인들 “그래도 내 자식”

이혜림 기자 | rim2@newscj.com 2015.05.18 08:57:06

신고건수 8년새 3배 급증 학대 행위자, 아들이 40% 부양부담이 학대로 이어져 학대 처벌, 3년간 4건 뿐 대상자 과반이 저소득 이하 “가정사 NO, 반드시 신고”

[천지일보=이혜림, 김민아 기자] #1. 이만재(가명, 77) 할아버지는 치매 증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로부터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한 채 방임·유기됐다. 이 할아버지는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경증치매로 타인의 말을 부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같은 질문을 되풀이 했다. 발견 당시 이 할아버지는 긴 백발머리가 엉켜져 있었고, 옷도 해지고 더러운 이물질로 오염된 상태였다. 이 할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는 집도 오래된 음식과 쓰레기, 벌레로 뒤덮여 있었다. 첫째 아들은 이 할아버지를 부양하겠다고 월세집을 구했지만, 이 할아버지를 홀로 두고 부양책임을 회피했으며 월세도 내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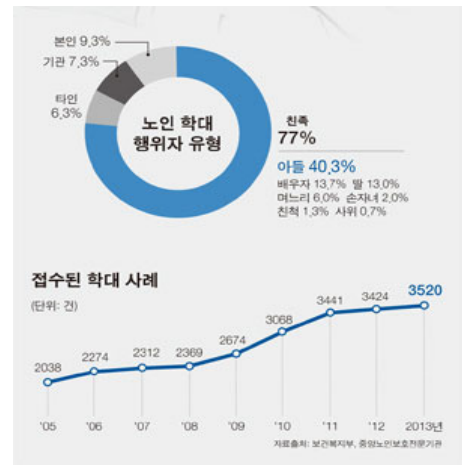
#2. 김순희(가명, 67) 할머니는 알코올 중독과 폭력성이 강한 아들로부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5년 이상 받았다. 김 할머니는 7~8년 전부터 성당에 다니고 있었으나 아들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종교 활동에 대한 마찰이 있었다. 아들은 성경책을 불태우며 “엄마도 물어야겠다” “천국으로 보내줄게”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보라” 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깨진 성모마리아 상의 조각을 김 할머니의 손목에 찌르려고도 했다. 김 할머니가 아들의 폭력을 피해 이웃집으로 도망이라도 가면, 아들은 이웃집 유리를 부수는 등 막무가내였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지만 자식들의 학대와 구타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효 문화를 근간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가정과 사회, 국가를 지키는 동방예의지국의 면모가 대한민국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노인 학대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는 추세다.

◆ 끊이지 않는 학대… 주범은 ‘아들’

빠른 고령화의 진행과 노인 학대 문제 인식 개선으로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집계한 연도별 노인 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2005년 대비 2013년 전체신고건수는 193.8%(3549건→1만 162건)로 급증했으며, 학대사례도 2038건에서 3520건으로 72.2% 늘었다.

학대행위자는 대부분 자녀 또는 친족이었다. 전체 학대행위자 4013명 중 40.3% 해당하는 1619명은 ‘아들’ 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딸’ 도 13.0%(519건)을 차지했다. 이들 자녀와



더불어 배우자, 며느리 등 ‘친족’ 이 학대행위자인 경우는 전체 학대사례의 77.0%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 중 아들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매년 지속돼 온 현상으로,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부모의 부양의무가 아들에게 부여되고 이에 대한 아들의 부양부담이 노인 학대를 야기한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이러다보니 노인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도 가정이 83.1%(2925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발견이 어려워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조기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노인 공경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됐다” 며 “요즘 발생하는 노인 학대는 경제적 요인이 크다. 자녀 세대들이 은퇴하고 나니 부양할 능력이 없어졌다” 고 문제를 제기했다.

◆ “그래도 내 자식” ... 전과자 만들 순 없어

노인 학대 가해자의 80%가 가족 등 친족이다 보니 행위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법적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 노인 학대로 처벌받은 건수는 3년간(2011~2013년) 4건에 불과했다.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더라도 학대 피해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전체 학대사례의 23.0%(824건)에 불과했다. 사람답지 않은 자식이라도 처벌받을까 걱정이 앞서는 탓이다.

이현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은 “노인 학대 사례는 자기 자식을 전과자로 만들 수 없다는 부모의 걱정 때문에 노인 학대가 꾀아 터져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이상 발견하기 어렵다” 며 사례 발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과반 이상, 경제적 어려움 겪어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하다면 폭력에서 벗어나기가 쉽겠지만 학대 피해 노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연금 혜택은 아직 미미하고, 나이가 들어 돈 벌기는 어렵다. 2013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피해 노인의 생활수준은 소득이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이하가 67.3%(2367명)으로 학대 노인의 과반 이상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부모 및 자녀간의 부양에 대한 1차적 책임을 가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 이에 호적상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등 제도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대 피해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인식 개선 필요... ‘이웃’ 함께 풀어가야

전문가들은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이현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은 “나이가 들면 신체적 차이가 급격히 드러난다.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은 단기 기억을 잘 못하거나 반복해서 물어보는 등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며 “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보호자 입장에서 귀찮게 여기게 되고 정서적 학대가 시작된다. 이렇게 시작된 학대가 신체적·경제적 학대까지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노인 학대와 관련된 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한다. 요즘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윤리 교육이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부모에 대한 효 사상도 사라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노인 학대를 가정사로 치부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노인 학대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다. 이웃이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인 학대를 목격할 경우 1577-1389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일보 www.jnilbo.com



화순군은 21일 '제2의 인생 귀농'을 희망하는 단체와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기 위해 도농교류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화순군에 따르면 (사)귀농귀촌정보센터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화순농업기술센터에서 도농교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화순군은 귀농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도시민들은 제2의 인생 설계를 화순에서 농업·농촌 공동체와 함께 꾸리게 된다. 이날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50여 명은 농업기술센터와 잠정햇살마을 등을 현장 견학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설명회와 농촌현장체험, 농산물 판매·홍보 등 유기적인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군, 도농교류 업무협약 체결..귀농 정착 도움 귀농귀촌정보센터, 선진복지사회연구회와 귀농 정보 등 교류

기사입력 : 2015년05월21일 09시32분 (아시아뉴스통신=조진현 기자)



20일 화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귀농귀촌정보센터(대표 전승규)와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대표 이정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도농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화순군청)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제2의 인생 귀농’ 을 희망하는 단체와 연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도농교류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사)귀농귀촌정보센터(대표 전승규)는 이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대표 이정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도농교류 업무협약을 맺었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교육, 귀농 관련 정보제공 등을 통해 공동 관심사인 제2의 인생 설계를 화순서 농업·농촌 공동체와 함께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귀농을 희망하는 단체와 연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50여명이 참여해 농업기술센터, 잠정햇살마을, 춘양 작두콩 농가, 동북 향원 발효식초, 동북 유천리 생태마을, 마중물을 현장 견학했다 “며 ” 앞으로도 화순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설명회와 농촌현장체험, 농산물 판매·홍보 등 유기적인 지원을 계속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내외일보=호남]화순/김영인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제2의 인생 귀농’ 을 희망하는 단체와 연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도농교류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사)귀농귀촌정보센터(대표 전승규)는 이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대표 이정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도농교류 업무협약을 맺었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교육, 귀농 관련 정보제공 등을 통해 공동 관심사인 제2의 인생 설계를 화순에서 농업·농촌 공동체와 함께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군 관계자는 “귀농을 희망하는 단체와 연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50여명이 참여해 농업기술센터, 잠정햇살마을, 춘양 작두콩 농가, 동북 향원 발효식초, 동북 유천리 생태마을, 마중물을 현장 견학했다 “며 ” 앞으로도 화순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설명회와 농촌현장체험, 농산물 판매·홍보 등 유기적인 지원을 계속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화순] 화순군, 도농교류 업무협약 체결

이진욱 기자 | rytn3295@naver.com 2015.05.20 18:07:51



▲ 20일 전승규 귀농·귀촌정보센터 대표(왼쪽)가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대표와 도농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화순군청) 귀농·귀촌정보센터, 선진복지사회연구회와 귀농 정보 등 교류
[천지일보 화순=이진욱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일 도농교류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화순군은 ‘제2의 인생 귀농’을 희망하는 단체와 연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가운데 도농교류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귀농·귀촌정보센터(대표 전승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대표 이정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도농교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화순군은 귀농 관련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귀농 희망자 모집 및 농산물 물품 구매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50여명이 참여해 농업기술센터, 잠정햇살마을, 춘양 작두콩 농가, 동북 향원 발효식초, 동북 유천리 생태 마을 등을 현장 견학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이 화순에서 농업공동체와 함께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군은 앞으로도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설명회와 농촌현장체험, 농산물 판매·홍보 등 유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귀농·귀촌 프로젝트’ 귀농인들의 생생한 농업 현장 속으로!



『제2 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 3기 과정』을 진행 중인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지난 11월 4일 전남 순창으로 귀농·귀촌 현장체험을 다녀왔다. 우선 순창군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순창군의 농업 현황과 귀농정책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유기농 미나리, 유기농 딸기, 꾸지뽕 농장을 차례로 방문해 귀농인들의 생생한 농업 현장 속을 들여다봤다. 글·사진 정권수 취재팀장

순창군 10대 특화작목

세계 10대 건강장수 식품으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안토시아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블루베리는 순창군의 전략작목으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재배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주로 구림, 복흥, 쌍치 지역에서 재배되며 계속해서 면적이 늘고 있는 추세다. 복분자는 해발 400m 이상인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데, 일교차가 커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고창에 버금가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특화작목 중 농가수가 1,200 가구로 가장 많다. 최근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군 전역에 식재된 작물도 있다. 바로 꾸지뽕이다. 열매는 물론 잎, 줄기, 뿌리 등 활용가치가 높아 귀농작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순창군은 예로부터 토질이 비옥하고 섬진강 상류의 깨끗한 물과 신선한 공기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최적의 기후 조건 속에서 친환경 농업의 적지로 평가받아 왔다. 유기농 딸기가

이를 증명한다. 또한 멜론이 딸기 후작으로 주로 재배되며 전국 브랜드로 판매성과를 내고 있다.

또 구연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순창 매실은 섬진강 상류인 동계, 적성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데 칼슘이 포도의 2배, 멜론의 4배 정도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순창군의 10대 특화작목은 두릅, 오디, 오미자, 상추다. 입맛이 없는 봄철 무공해 산채로 각광받는 두릅은 향이 진하고 잔가지가 적은 것이 좋다고 한다. 요즘 웰빙식품으로 유명세를 타는 오디는 사과와 비교해 칼슘, 칼륨, 비타민 B, C가 14배 이상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예방, 탈모방지, 숙취해소 등에 탁월하다고 한다. 연간 500톤 가량 생산된다.

또한 술이나 한약재 재료로 쓰임새가 다양한 오미자는 250여 농가가 해발 500m 이상에서 주로 재배한다. 너무도 친숙한 상추도 순창의 10대 특화작목이다. 순창에서 생산되는 양채류는 잎이 두꺼워 쉽게 무르지 않고 독특한 맛과 향이 어우러지는 게 특징이다.

가ैया' 농촌교육농장

유기농 미나리와 효소를 생산하는 자라미농원. 이곳은 최근 농촌교육농장 '가ैया'로 더 유명세를 얻고 있다. 결혼 1년차인 14년 전, 시골에서 재밌게 살아보려 순창에 터 잡은 김기열, 전명란 부부는 장류의 고장인 만큼 처음에는 하우스 3동에 고추농사를 지었지만 섬진강 물이 역류해 3년간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그 후 지역적 특성을 고민한 끝에 물에 사는 미나리를 선택했고 소위 대박을 냈다. “미나리를 내 자식처럼 재배하다보니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왔다”고 말하는 김기열 대표는 자식농사도 풍년으로 5남매를 키우고 있다. 요즘은 귀농을 결심한 사람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일에도 전념하고 있다. 김 대표는 “정착하려는 곳의 자연환경을 잘 파악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노동력과 작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http://jarame.co.kr>

‘러브팜’ 농장

이어 우리가 간 곳은 조동찬 대표가 운영하는 ‘러브팜’ 농장이다. 유기농 딸기, 복분자, 블루베리, 블랙초크베리(아로니아) 등을 재배하는 곳으로 조 대표는 30여년 전 고향인 순창으로 귀농해 1990년부터 유기농사를 시작, 2008년에 모든 작물을 유기인증 받을 정도로 유기농업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블루베리에 이어 점점 인기를 끌고 있는 블랙초크베리는 천연물 중 가장 높은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어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항암효과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도의 80~180배, 블루베리나 아사이베리의 4.6~7배 정도 높은 함유율을 보인다. 조 대표는 “농업 경쟁이 치열한 것 같아도 열심히 노력하면 경쟁이 별로 없을 수 있다”며 시골에서 1억 이상 수입자 중 40%가 귀농한지 5년에서 7년 사이라는 최근 조사를 인용해 용기를 북돋았다.

하지만, “이곳 분들은 외국인들이 농지 값만 올려놔 정작 이곳 젊은이들은 정착하지 못한다는 위기의식과 경계심을 갖고 있다”며 농촌 주민들에게 마음을 열고 접근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http://organiclovefarm.com>

에덴 ‘꾸지뽕’ 농원

잎, 줄기, 뿌리 등 활용도가 높아 귀농작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꾸지뽕.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차 내려온 ‘에덴 꾸지뽕 농원’ 김종운 대표 내외는 류마티스 관절염, 협심증에다 교통사고 후유증까지 겹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을 이끌고 순창에 정착했다고 한다. 지금은 부부 내외가 모두 건강을 회복해 활발하게 농업에 열중하고 있음은 물론 품종개량을 통한 묘목 생산으로 짝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미 1만주를 팔았을 정도다.

김 대표는 꾸지뽕의 열매, 잎, 줄기 등을 가공해서 상품화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통상 잎을 말려 끓여 먹는 방법 외에도 양념간장이나 된장에 찍어 먹는 방법 등 다양한 요리 활용법을 개발해 홍보하고 있고 꾸지뽕을 이용해 청국장이나 된장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또 열매 씨를 빼고 수분을 제거해 고추장도 생산하고 있다. 이곳 꾸지뽕을 구매해간 고객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활용해보고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기도 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우리 내외는 건강을 모두 잃고 포기하다시피 내려왔는데 꾸지뽕으로 직접 효과를 본 경우”라며 “꾸지뽕을 적극 추천한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http://edengjb.alltheway.kr>

사)선진복지사회연구 '베이비부머세대 노후...' 토론회 개최

PROGRAM

1부

시책, 고문지(본) 연구회 부회장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인사말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축 사 김영래 전 동국대 총장
- 조성철 본 연구회 고문 / 한국사회복지정책회 이사장
- 참석자 소개 사회자

2부

시책, 이경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1) 주제발표: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 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정경희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장)
- 2) 토론자 김현수 박사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 팀장)
이상철 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김경록 소장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 3) 참가자 질의 & 응답
- 4) 총 마무리 발언 정경희 박사
- 5) 석간과 함께 번외토론

첫번째 **일명** **등산 & Talk** **코스트 & 장기자랑**

"Feel 살리기, 여기서 멈출 수 없다!"

· 일시: 7월 9일(목)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참석: 이경숙 회장, 조성철 회장, 김현수 박사, 정경희 박사, 김경록 소장, 사회자

두번째 **이름**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 현안과 과제 토론회**

· 일시: 7월 9일(목)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참석: 이경숙 회장, 조성철 회장, 김현수 박사, 정경희 박사, 김경록 소장, 사회자

세번째 **이름** **청소녀와 베이비부머세대가 함께 하는**

1박 2일 **공감여행**

· 일시: 7월 10일(금) 오후 2시 · 장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11-1

· 참석: 이경숙 회장, 조성철 회장, 김현수 박사, 정경희 박사, 김경록 소장, 사회자

네번째 **이름**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 현안과 과제 토론회**

· 일시: 7월 10일(금)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참석: 이경숙 회장, 조성철 회장, 김현수 박사, 정경희 박사, 김경록 소장, 사회자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Feel 살리기 한마당!**

초·대·합·니·다

두번째 마당 **토론회**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 일시: 2015년 7월 9일(목)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행정자치부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 제19차 토론회가 7월 9일(목) 오후 2시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정경희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장)가 주제발표를 맡고, 김현수 박사(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팀장),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특별히 열아홉 번째 토론회를 위해 김영래 전 동덕여대 총장(아주대 명예교수)과 조성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본 연구회 고문)이 축사를 한다.

이정숙 회장은 “720만 베이비부머세대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세대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바, 은퇴(퇴직) 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말고 제2인생 설계를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번 토론회는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제20차 토론회는 오는 10월에 이어진다.

한편, 이들 토론회는 행정자치부 2015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며,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www.sswkorea.org, 070-8793-5202)로 문의하면 된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 제19차 토론회가 7월 9일(목) 오후 2시 광화문 프레스 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정경희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장)가 주제발표를 맡고, 김현수 박사(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팀장),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특별히 열아홉 번째 토론회를 위해 김영래 전 동덕여대 총장(아주대 명예교수)과 조성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본 연구회 고문)이 축사를 한다.

이정숙 회장은 “720만 베이비부머세대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세대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바, 은퇴(퇴직) 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말고 제2인생 설계를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며 “이번 토론회는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 밝혔다. 제20차 토론회는 오는 10월에 이어진다.

한편, 이들 토론회는 행정자치부 2015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며, 행사에관한자세한사항은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www.sswkorea.org070-8793-5202)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wjd@empas.com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Feel** 살리기 한마당!

첫번째 마당

힐링 등산 & Talk 콘서트 & 장기자랑
‘Feel 살리기, 여기서 멈출 수 없다!’ 9월 5일(토)

두번째·네번째 마당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 현안과 과제 토론회
7월 9일(목), 10월 21일(수)

세번째 마당

청소년과 베이비부머세대가 함께 하는
1박2일 공감여행 8월 29일~30일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두번째 네번째 마당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
현안과 과제 **토론회**

- ▶ 장 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
- ▶ 일 시 10월 22일 (목) 오후 2시
- ▶ 참 석 비 없음
- ▶ 참석대상 베이비부머세대 및 누구나

▶ 행사취지

- ① 720만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퇴직 후 불안한 일자리 및 노후 대책을 마련을 위함
- ② 베이비부머세대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통한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 ③ 생활고를 비관해 급격히 늘어나는 50대 자살률의 원인과 대책 방안
- ④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인생이모작을 설계할 위한 지식 및 정보 제공
- ⑤ 근미래 샌드위치 세대인 이들이 자세대와 부모세대와의 소통과 적절한 역할 부담으로 원활한 관계형성을 위한 전문가 의견청취

세번째 마당

청소년과 **베이비부머세대**가
함께 하는 **1박2일 공감여행**

- ▶ 장 소 순천만·보성녹차·담양소쇄원·고흥군 다도해
- ▶ 일 시 8월 29(토)~30(일), 7시 출발
- ▶ 참석대상 청소년, 베이비부머세대 각 20명 멘토링

▶ 행사취지

- ① 그룹홈 청소년들에게 멘토 또는 부모 되어 주기
- ② 역사적 의미 및 힐링이 가능한 곳의 여행을 하며 베이비부머세대의 경험과 지식 등을 나누며 추억쌓기
- ③ 세대간 소통 및 공감을 이루고 베이비부머세대인 자기 존재감 재확인하고 삶의 목표와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됨
- ④ 그룹홈 청소년들이 어른, 부모에 대한 거부와 부정적인 생각을 덜게 함
- ⑤ 멘토로 참가하는 베이비부머는 자기 존재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재인식케 함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설립목적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데 필요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에 대한 각종 연구, 조사, 분석, 홍보, 거동 활동 및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해소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적으로 함

연혁

- 2008. 10. 15 창립
- 2011. 10. 2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경기도 제 1237호)
- 2012. 10. 22 법인설립 허가(경기도 제 2012-01-90호)
- 2013. 7. 1 기재부지정기부단체 등록
- 2014. 10. 22 토론회 개최, 2015.2. 26 토론회(학자-국립중앙도서관 연구보존)
- 2014. 9. 23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시민사회소통부 협력단체 등록
- 2014. 11. 21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보건복지부 제 196호)
- 2015. 4. 1 [사회] JFE코디네이터(자격증 등록승인 [등록번호 2015-001578])
- 2015. 4. 6 행안부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자 지정
- 2015. 4. 28 2015 BK기업은행 후원네트워킹 멘토링 지원사업 선정
- 2013. 4. ~ 재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과과정 5기 진행중
- 2015. 7. 8수료식 [사회] JFE코디네이터(자격증 발급)

복지는 우리의 **꿈**을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 본 연구회와 함께 우리나라를 선진복지국가로 만들어 가실 가족을 찾습니다.

후원 계좌 1005-702-640482 우회권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사무소 (463-8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10번길2 성지하이츠빌 1119호
서울사무소 (152-642) 서울 구로구 공원로 3 선경오피스텔 1808호

TEL 070.8793.5202 FAX 031.707.5042
E-MAIL 2silent@hanmail.net

〈2015.09.05.토〉



첫번째
마당

힐링 등산 & Talk 콘서트 & 장기자랑



행정자치부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Feel 살리기, 여기서 멈출 수 없다!”

1부: 힐링 등산

용문산 등산 안내도



2부: Talk 콘서트

▶▶ 초대가수

건아들 박대봉 ('79 제1회 mbc강변가요제 동상)
박희진
조이

▶▶ 출연진

김형운(한의사)
강미순(수지침)
김선호(베이비부머재가성공명사)
정은생(웃음강사)



사회 : 박미출, 이정숙

3부: 장기자랑 및 체험부스

▶▶ 한의/수지침 체험 몽골테트 운영



한의/수지침 체험을 원하는 분은 희망 항목과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만 접수 ▶ 010-8247-2652 (체험 희망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



09:30 양평 용문산 도착
09:30 - 12:30 산행 준비체조, 氣받기 산행
12:30 - 13:00 하산 및 꿀맛 점심 남남!!!



13:00 - 13:30 장내정리 및 초대가수 노래
13:30 - 15:00 ♥건강식요법 및 건강관리 한의사
♥웃음은 건강이다, 복지다.
♥수지침으로 간단한
건강예방 및 응급처방
♥베이비부머 생생 소자본
창업성공담
15:00 - 15:30 ♥초대가수
♥느린 우체통(나에게 보내는 연말편지)



15:30 - 17:30 ♥희망 풍선 불기
♥장기자랑
♥한의/수지침 체험
17:30 - 17:50 초대가수 및 시상식
18:00 집으로 go!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9988강의

건강9988, 웃음9988, 취미찾기

- 목적▶ 집에서나 야외에서 평생시 스스로 간단한 체조나 수지침, 식이요법하고 웃는 습관을 기르며 멘티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주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목표▶ 멘티 스스로 작은 질병은 예방하고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도록 함

힐링여행

- 목적▶ 멘토 멘티가 여행을 통해 서로 자연스럽게 인간적 신뢰관계를 형성 공간에 간했던 마음을 자연 속에서 해소하고 햇볕과 공기 등 사소한 것이 더 소중함을 깨닫게 함
- 목표▶ 자아재발견과 자기 소중함을 깨닫게 함

명사와의 대화

- 목적▶ 동년배의 명사들로부터 조언, 지혜의 깨달음의 시간을 가짐
- 목표▶ 과거보다 여성에 대한 애착과 긍정적 사고로의 전환

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 목적▶ 멘티 가슴에 담았던 이야기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멘토에게 함
- 목표▶ 자기 고백을 통해 스스로 치유 할 수 있도록 유도함

행복한 멘토 약속

- 히나 나, 행복한 멘토는 어르신들 내 부모처럼 생각하겠습니다
- 둘 나, 행복한 멘토는 어르신의 경험과 경륜을 존중하겠습니다
- 셋 나, 행복한 멘토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겠습니다
- 넷 나, 행복한 멘토는 어르신에게 화를 내거나 재촉하지 않겠습니다
- 다섯 나, 행복한 멘토는 멘토링을 통해 알게 된 어떤 내용도 비밀을 지킬 것입니다
- 여섯 나, 행복한 멘토는 시간과 약속을 잘 지킵니다

행복한 멘티 약속

- 히나 나는 멘토자와 함께 하는 시간동안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겠습니다
- 둘 나는 멘토자를 딸, 아들처럼 생각하겠습니다
- 셋 나는 멘토자에게 칭찬을 하겠습니다
- 넷 나는 멘토자와의 시간과 약속을 잘 지킵니다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설립목적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에 대한 각종 연구, 조사, 분석, 홍보, 계몽 활동 및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해소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적으로 함

연혁

2009. 10. 15 창립
2011. 10. 2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경기도 제 1237호)
2012. 10. 22 법인설립 허가(경기도 제 2012-01-90호)
2013. 7. 1 기재부지정기부단체 등록
2014. 10. 22 토론회 책자, 2015.2. 26 토론회책자-국립중앙도서관 영구보존
2014. 9. 23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시민사회소통부 협력단체 등록
2014. 11. 21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보건복지부 제 196호)
2015. 4. 1 [시니어LIFE코디네이터]자격증 등록승인 [등록번호2015-001578]
2015. 4. 6 행안부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자 지정
2015. 4. 28 2015 IBK기업은행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지원사업 선정
2013. 4. ~ 제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과정 5기 진행중
2015. 7. ※수료시 [시니어LIFE코디네이터]자격증 발급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본 연구회와 함께 우리나라를 선진복지국가로 만들어 가실
뜻 있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요

후원 계좌 1005-702-640482 우리은행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사무소 (463-8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10번길2 성지하이츠 1119호
서울사무소 (152-842) 서울 구로구 공원로 3 선경오피스텔 1808호

TEL 070.8793.5202 FAX 031.707.5042

E-MAIL 2silent@hanmail.net

멘티 어르신과 멘토의 행복한 만남!

소중한 나를 위한 9988작전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근심은 - (덜고), 기쁨은 + (더하는) 행복한 멘토링!

멘토링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멘티와 짝을 이루어
멘티의 정서, 건강, 여가 등을 지원하고 조언, 격려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멘티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



2015. 5. 27(수) 첫 결연식

■ 일시 : 2015. 5. 27(수) 1부 - 오전 12시~12시30분 ■ 장소 : 정자2동 주민자치센터(1부)
2부 - 오전 12시30분~1시30분 인근 식당(2부)

■ 순서

(시행사 : 조명숙 교수(코디네이터))

1. 개회사 조명숙 교수
2. 인사말 이장숙 회장(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귀원 동장(정자2동 주민자치센터)
3. 사업내용 소개 조명숙 교수
4. 멘티와 멘토의 행복약속 멘티 대표자
멘토 김정민
5. 멘토 소개
6. 멘티와 멘토 만남 : 멘토 1명 멘티 3명
7. 멘토멘티 행복한 식사 장소로 이동 & 한 테이블 4명(멘토 1, 멘티 3) 배치
8. 폐회

사업 세부 일정 및 내용

■ 시간 : 오후 2시~4시 ■ 장소 : 정자2동 주민자치센터

건강 9988

- 날짜 : 6월 19일 (목)
- 강사 : 김형운 한의사, 김정민 한의사, 조명숙 교수

내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

- 날짜 : 9월 17일 (목)
- 강사 : 이한희, 김정민

웃음 9988

- 날짜 : 8월 20일 (목)
- 강사 : 정은상 한국웃음연구소 웃음코디
조명숙 교수

명사와의 대화

- 날짜 : 7월 16일 (목)
- 강사 : 오영숙 전 세종대총장(국가안전보장회의
윤광남 어른신 가수 (85세))

나에게 맞는 취미 찾기

- 날짜 : 11월 20일 (금)
- 강사 : 맹현옥 교수, 김혜숙 교수

행복 여행

- 날짜 : 10월 21일 (수)
- 장소 : 용인 휴양림
- 시간 : 10시 출발, 4시 도착

종료식

- 날짜 : 11월 29일 (금)
- 시간 : 12시 반

멘토

멘티

행
정
조

김형운
한의원/천문한의원 원장

김병호, 김양두, 김병수

부
조

문승권
다산경영정보연구원 원장

정규수, 이수남, 정영일

한
조

황영자

이정순, 김열단, 하연옥

멘
조

이한희
한국동화요리협회 회장

김정자, 김진오, 문일순

토
조

맹현옥
시인/서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박정순, 심귀순, 양영주

링
조

김정민
한국동화요리협회 부회장

오정임, 최길자, 정성남

코디네이터 조명숙 교수 / 이장숙 회장(선진복지사회연구회)

슈퍼바이저 김혜숙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설립목적 :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재고에 대한 각종 연구, 조사, 분석, 홍보, 계몽 활동 및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해소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적으로 함

연 혁 :

- 2009. 10. 15 창립
- 2011. 10. 2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경기도 제 1237호)
- 2012. 10. 22 법인설립 허가(경기도 제 2012-01-90호)
- 2013. 7. 1 기재부지정기부단체 등록
- 2014. 10. 22 토론회 책자, 2015.2. 26 토론회책자-국립중앙도서관 영구보존
- 2014. 9. 23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시민사회소통부 협력단체 등록
- 2014. 11. 21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보건복지부 제 196호)
- 2015. 4. 1 [시니어LIFE코디네이터]자격증 1급, 2급 등록승인 (등록번호 2015-001578) 보건복지부 승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 2015. 4. 6 행안부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자 지정
- 2015. 4. 28 2015 IBK기업은행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지원사업 선정
- 2015. 10. **중 순 [시니어LIFE코디네이터]자격증 5기 개강 예정**
*수료시 시니어라이프코디네이터 2급 자격증 발급

공지사항

1) 8.29~30(금,토) 청소년과 베이비부머세대가 함께하는 1박2일 공감여행

-장소: 순천만 보성녹차, 담양소쇄원

-참석대상: 청소년 (20명), 베이비부머세대 (20명)

-참가비: 없음

2) 9.5 (토) 힐링등산 & Talk 콘서트 & 장기자랑

-장소: 양평 용문산

-참석대상: 베이비부머세대 남,녀 무관

-참가비: 없음

3) 10.22 (목)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 일자리 관련 토론회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참석대상: 누구나 참석

-참가비 : 없음

4) 9월 26(토) 추석 자원봉사 성남 '안나의 집' 저녁배식 및 설거지

9월 28(일) 추석 자원봉사 성남'안나의 집'저녁배식 및 설거지

9월 29일(화) 추석자원봉사 송파구립노인장기요양센터 어르신

식사거들기 및 청소

5) 10월 24(토) 시작 . 연속 4주 시니어Life코디네이터 자격증 2급 주말반 강의

(보건복지부 승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장소: 추후결정

-참석대상: 누구나 가능

-장소 ,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 후원계좌**

611-020289-871(외환) 예금주: 사단법인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

*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 (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 과제’ ((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2011.6.15),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2012.6.29) 토론회를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 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저희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구성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silent@hanmail.net 070-8793-5202

